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 학위논문

일제강점기 도시성곽 성문의 역할과 활용 방식 변화

Chang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Gate of City Wall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태 완

일제강점기 도시성곽 성문의 역할과 활용 방식 변화

Chang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Gate of City Wall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지도교수 田 鳳 熙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金 泰 完

金泰完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委 員 長 최 재 필 (인)

副委員長 전 봉 희 (인)

委 員 서 현 (인)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도시성곽 성문의 역할과 활용 방식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태 완
지도교수 전 봉 희

본 연구는 성곽의 출입구였던 성문 건축이 일제강점기 동안 겪었던 역할과 활용 방식의 변화에 집중하여 고찰하고, 현재 도시에 남겨진 성문 건축의 의미가 형성된 과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문은 군사적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방어와 지휘의 역할을 담당한 성곽시설이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 읍성의 발달과 함께 성곽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행정적 목적 또한 강조되었고,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성곽에서 성문은 주요 대로들의 기점이 되었으며, 통치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때때로 의례 공간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전근대 도시성곽에서 성문은 실용성과 상징성을 가진 다목적 건축이었다.

하지만 전근대 성문의 역할은 일본에 의해 주도된 성곽시설의 해체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고종을 폐위시키고 국권을 침탈하자마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가로막던 성벽에 대한 훼철을 진행하였다. 벽이 사라진 문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도로와 도시 확장에 방해되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때문에 많은 성문이 성벽과 함께 철거되었다. 하지만 일부 성문들은

성벽이 훼철되었음에도 남겨지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세키노 타다시는 고적 조사를 통해 고건축물들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였고, 이에 높은 등급으로 평가된 성문들이 철거되지 않고 남겨질 수 있었다. 또한 고적 조사에 포함된 성문이 아니더라도 일부 도시에서는 성문 중 위계가 가장 높은 남문들이 남겨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철거 자체가 어렵고, 도시 확장에 큰 방해가 안되는 북쪽의 문들도 잔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문은 상징적 의미, 건축적 가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잔존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성문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활용의 가치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성문 건축의 변화 과정은 일본에 의한 타자화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지배 국가의 문화를 열등한 타자로 분리하는 타자화 전략은 성문 건축의 전개 과정에서 확인된다. 이는 크게 식민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타자화의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먼저 식민전기 성문의 상황은 크게 철거와 잔존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철거의 양상은 성벽과 함께 철거되는 성문들과 성벽 훼철 이후에 철거되는 성문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철거 양상들은 성문의 건축적 가치가 높지 않거나 새로운 역할을 얻지 못하면, 도로 개수와 재정 부족의 이유로 철거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잔존한 성문들에 대해서 일본은 소극적인 보존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성문들은 방치 형태의 유지만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되는 성문들이 나타났다. 성문은 접근성, 상징성, 공간성을 통해 관립시설, 전시 및 강연 시설, 부속시설 및 장식적인 용도로 활용되었다. 또한 도시와 활용 용도에 따라 문루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 건축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식민전기의 타자화 방향은 불완전한 형태를 보였다. 조선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의 활용과 함께 공간 활용에 집중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는 식민전기가 타자화가 시작되는 시기이자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문의 역할은 식민후기에 들어서며 점차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도로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성문의 배치는 교통섬을 조성하거나 도로를 우회하고, 혹은 성곽이 남겨져 있는 사례들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문의 영역을 분리하고 도시 조직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관영 공사의 체계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며 관립시설들이 신축되기 시작했고, 성문을 공영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관광 진흥정책과 함께 성문이 관광화되며 전근대적 대표성을 가진 전시물로 사용되었다. 결국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제정과 함께 문화재로써 성문 건축의 역할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식민후기 성문 건축의 전환은 완전한 타자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기능을 상실한 문화재로서 성문 건축은 도시 조직과 분리되어 조선의 상징성만 남겨진 타자화의 결과물이 되었다. 이러한 성문의 상황과 문화재 제도는 해방 이후까지 영향을 주었다. 남한과 북한은 「보존령」의 효력을 유지하였고, 문화재 지정, 보수·복원 사업 등에서 그 흔적이 확인된다. 오늘날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사라진 성문과 성곽에 대한 복원까지 주목되고 있으며, 올바른 복원을 위해 성문의 변화 과정과 의미를 고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성문 건축의 의미는 전근대의 건축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능적 역할을 상실하고 상징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조선 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성문의 변화는 성곽이나 정책 등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어져 성문 자체의 변화를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성문 건축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를 통해 오늘날 도시에 남겨진 성문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일제강점기, 도시 성곽, 성문, 문루, 전용, 타자화, 관광, 문화재
학 번 : 2020-26572

목 차

▣ 표 목차 ····· v
▣ 그림 목차 ····· vii

I.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1.2 선행연구 검토 ····· 4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6

II. 전근대 성곽시설 해체와 성문의 위상 변화 ····· 9

2.1 조선시대 성문의 도시적 기능과 상징적 역할 ····· 10
2.1.1 성곽도시의 형성과 성문의 역할 ····· 10
2.1.2 성곽도시와 성문의 분포 ····· 15
2.1.3 성문의 구성요소와 분류 ····· 17

2.2 일제의 성곽 철거와 전근대적 위상의 위축 ····· 21
2.2.1 '성벽처리위원회' 설립과 성곽 훼철의 본격화 ····· 21
2.2.2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성문 등급 분류 ····· 24
2.2.3 성벽 훼철 이후 성문의 철거와 잔존 ····· 27

2.3 소결 ····· 33

III. 식민전기 성문의 존치와 공적 활용 ····· 34

3.1 성문 철거와 존치 방향 ····· 35
3.1.1 성문 역할의 상실과 철거 양상 ····· 35
3.1.2 동선 기능의 유지와 선택적 보존 ····· 38

3.2 문루 공간의 행정과 대외시설 전용 ····· 44
3.2.1 전시와 강연공간의 활용 ····· 44
3.2.2 관립시설의 활용 ····· 48
3.2.3 부속시설 및 장식적 활용 ····· 52

3.3. 문루 형태의 유지와 변형 ····· 54
3.3.1 문루 공간 유지 ····· 54
3.2.2 내부 공간 변형 ····· 56

3.4. 소결 ····· 58

IV. 식민후기 잔존 성문의 고립과 타자화 ····· 60

4.1 주변 도로의 개설과 성문의 분절 ····· 61
4.1.1 교통섬 조성 방식과 성문의 고립 ····· 62
4.1.2 도로 우회 방식과 동선의 분리 ····· 64
4.1.3 성벽 잔존 성문의 과도기적 특징 ····· 68

4.2 공적 활용의 감소와 상징성 강화 ····· 72
4.2.1 관립시설 확보와 문루 활용의 축소 ····· 72
4.2.2 관광 진흥정책과 관광 대상화 ····· 74

4.3 문화재 제도의 확립과 해방 이후 영향 ····· 83
4.3.1 '보존령'의 제정과 전근대 형태의 재현 ····· 83
4.3.2 해방 이후 문화재 지정과 복원 ····· 89

4.4 소결 ····· 96

V. 결론 ····· 99

▣ 참고문헌 ····· 102
▣ Abstract ····· 107

표 목 차

[표 2-1] 1893-1908년 성곽 잔존 상황 ····· 16
[표 2-2] 1909-11년 고건축물 조사 목록에 포함된 성문과 조사등급 ····· 26
[표 2-3] 1919년 조선지형도의 도·읍성과 성문 잔존 상황 ····· 28
[표 2-4] 주요 도시 성문 철거 및 잔존 상황 ····· 32
[표 3-1] 통로로 사용되는 성문 ····· 39
[표 3-2] 문루 공간을 유지하는 성문의 활용 용도 ····· 54
[표 3-3] 문루 공간을 유지한 성문의 활용 전후 ····· 55
[표 3-4] 문루 공간을 내부화하는 성문의 활용 용도 ····· 56
[표 3-5] 문루 공간을 내부화한 성문의 활용 전후 ····· 57
[표 4-1] 주요 도시 성문 문화재 지정 현황 ····· 91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 8
[그림 2-1] 周王地圖 ····· 12
[그림 2-2] 도성에서 성문과 도로의 연결(조선성시도, 1830) ····· 14
[그림 2-3] 조선시대 읍성 개소의 변화 ····· 16
[그림 2-4] 성곽 다이어그램 ····· 18
[그림 2-5] 조선시대 성곽 구조 ····· 18
[그림 2-6] 성문 다이어그램 ····· 19
[그림 2-7] 성문의 구성요소 ····· 19
[그림 2-8] 축성 목적에 따른 분류 ····· 19
[그림 2-9] 개구부 유형에 따른 분류 ····· 20
[그림 2-10] 초루(譙樓) ····· 20
[그림 2-11] 누문(樓門) ····· 20
[그림 2-12] 양측 성벽이 훼철된 숭례문 ····· 24
[그림 2-13] 남측 성벽이 훼철된 흥인지문 ····· 24
[그림 3-1] 철거 이전 혜화문 ····· 36
[그림 3-2] 문루 철거 후 혜화문 ····· 36
[그림 3-3] 철거 이전 정해문 ····· 37
[그림 3-4] 이건 된 정해문(청류정) ····· 37
[그림 3-5] 남대문개축도로공사준공 평면도 ····· 40
[그림 3-6] 보수 공사 전 보통문 ····· 42
[그림 3-7] 보수 공사 후 보통문 ····· 42
[그림 3-8] 의주 남문에 물산진열 ····· 45
[그림 3-9] 1913년 「매일신보」에 수록된 의주남문 ····· 45
[그림 3-10] 개성 남대문에서 개최된 스케치전람회 ····· 47
[그림 3-11] 개성 남대문에서의 불교강연 ····· 48
[그림 3-12] 경성 흥인지문에서 진행된 위생강연 ····· 48
[그림 3-13] 1905년 연광정 ····· 49
[그림 3-14] 1905년 이전 대동문 ····· 49
[그림 3-15] 1908년 대동문 ····· 49
[그림 3-16] 1919년 평양부전도, 평양동부 ····· 50

[그림 3-17] 대동문공원부지 평면도 ····· 50
[그림 3-18] 분견소로 활용되는 해주 남문 ····· 51
[그림 3-19] 개성소재 남대문 대부의 건 ····· 52
[그림 3-20] 1929년 조선박람회 당시 숭례문 ····· 53
[그림 3-21] 식민전기 성문 양상 ····· 58
[그림 4-1] 숭례문과 주변 도로(1920년대) ····· 63
[그림 4-2] 1919년 숭례문 상황 ····· 63
[그림 4-3] 전주 풍남문(1920년대 추정) ····· 63
[그림 4-4] 1919년 풍남문 상황 ····· 63
[그림 4-5] 개성남대문(1920년대 추정) ····· 64
[그림 4-6] 1919년 개성남대문 상황 ····· 64
[그림 4-7] 철도 개설 이후 보통문 ····· 65
[그림 4-8] 1920년대 보통문 상황 ····· 65
[그림 4-9] 도로 우회 이후 흥인지문 ····· 66
[그림 4-10] 1919년 흥인지문 상황 ····· 66
[그림 4-11] 1910년대 대동문 앞 전경 ····· 66
[그림 4-12] 공원 조성 중의 대동문 ····· 67
[그림 4-13] 1920년대 대동문 상황 ····· 67
[그림 4-14] 의주 남문(1913년 이후) ····· 68
[그림 4-15] 1919년 의주 남문 상황 ····· 68
[그림 4-16] 1919년 팔달문 상황 ····· 70
[그림 4-17] 1919년 장안문 상황 ····· 70
[그림 4-18] 1919년 화서문 상황 ····· 70
[그림 4-19] 1919년 창룡문 상황 ····· 70
[그림 4-20] 대동문 엽서 사진 ····· 75
[그림 4-21] 숭례문 엽서 사진 ····· 75
[그림 4-22] 숭례문이 삽도된 엽서 사진 ····· 76
[그림 4-23] 서울관광지도(1929) 숭례문 ····· 78
[그림 4-24] 평양조감도(1929) 보통문 ····· 78
[그림 4-25] 사람들이 모이는 흥인지문 ····· 79
[그림 4-26] 경성 운동장 전경 ····· 79
[그림 4-27] 모란대 공원의 칠성문 ····· 80
[그림 4-28] 모란대 공원의 전금문 ····· 80
[그림 4-29] 대동문 공원부지 배치도 ····· 81

[그림 4-30] 대동문 공원 전경 ····· 81
[그림 4-31] 대동문과 흥복사지칠층석탑 ····· 81
[그림 4-32] 서울관광지도(1929) 흥인지문 ····· 82
[그림 4-33] 평양조감도(1929) 대동문 ····· 82
[그림 4-34] 평양조감도(1929) 칠성문 ····· 82
[그림 4-35] 평양조감도(1929) 전금문 ····· 82
[그림 4-36] 평양조감도(1929) 현무문 ····· 82
[그림 4-37] 장안문 보수 공사 전 ····· 85
[그림 4-38] 장안문 보수 공사 후 ····· 85
[그림 4-39] 노출된 초석부 ····· 86
[그림 4-40] 1905년 이전 대동문 ····· 86
[그림 4-41] 1915년 대동문 ····· 86
[그림 4-42] 1924년 대동문 ····· 86
[그림 4-43] 평양대동문 실측 횡단면도 ····· 87
[그림 4-44] 평양 대동문 복원 횡단면도 ····· 87
[그림 4-45] 평안감사향연도에 묘사된 대동문과 연광정 ····· 88
[그림 4-46] 1950년 훼손된 숭례문 ····· 93
[그림 4-47] 1963년 숭례문중수준공사 ····· 93
[그림 4-48] 해미읍성 전경 ····· 94
[그림 4-49] 복원된 진남문 ····· 94
[그림 4-50] 일제강점기 대구 남문 ····· 95
[그림 4-51] 1980년 복원 이후 대구 남문 ····· 95
[그림 4-52] 식민후기 성문 변화 양상 ····· 96
[그림 5-1] 일제강점기 성문의 변화 과정 ····· 99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성문은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한가운데에 홀로 솟아있다. 또한 성문은 궁궐이나 사찰과 같이 건축물의 군집을 형성하지 않고 단일 건축물로 남겨져 있다. 현대 건축물들로 둘러싸인 도시 조직 안에서 이와 같은 거대한 전근대적 구조물은 이질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건축물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주변 환경과 맥락을 형성한다. 하지만 현재 성문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맥락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추측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현대 도시에서 성문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닌 역사적 상징성을 드러내는 '도시 문화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필요목적에 의해 건축되었을 성문이 어떻게 그 기능을 잃고 도시의 전시물로 전환되었는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성문은 성곽의 구성요소로 전근대의 도시 구조의 기반이 되었다. 『CITY WALL』을 저술한 James D. Tracy는 본인의 저서에서 근대 이전의 성곽과 도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한가지 용어로 다른 용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1]. 성곽은 도시와 동일시될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곽에서 동선의 기점이 되는 성문은 도시 구조와의 관계성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 또한 성벽과 성문을 기반으로 형성된 성곽도시이다. 삼국시대부터 도성제를 통해 성곽 시설이 기반이 되는 도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이르면 도성을 비롯한 지방 도시의 읍성까지 성곽 중심의 도시 구성이 이루어졌다. 세조(世祖) 대의 양성지(梁誠之)가 우리나라를 성곽의 나라라고 언급하는 점은 성곽을 통해 형성된 우리나라의 도시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곽은 기본적으로 읍치의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이었다. 그 중 성문은 성곽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출입구로서, 사람들의 동선이 집중되는 장소였다. 이로 인해 성문 앞은 소통의 장소가 되거나 사신이나 관리의 부임 등

---

1) James D. Tracy, 『CITY W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3쪽

도시 행사를 위한 의례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특히 남문이나 동문과 같이 주요 방위에 위치한 성문은 도시의 중심도로와 연결되어 통치 시설과 시장과 같은 도시 조직이 배치되는 틀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성문은 도시 동선의 중요한 관문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2].

성문은 일반적으로 하부의 육축과 상부의 문루로 구성되었고, 육축부는 문을 통해 직접적인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 문루는 감시와 방어 이외에도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3]. 모든 성문이 문루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도시에서 중요도가 높은 성문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성문의 위계에 따라 중층으로 구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문루를 가진 성문은 성곽에서의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으며, 기능적인 역할을 함께 수용하였다.

하지만 1900년대 초부터 성문의 기반이 되었던 성벽이 철거되기 시작하였고, 전근대 성곽도시의 질서는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성문들은 잔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의 위상과 역할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성문의 문루는 일제에 의해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육축부는 도시 관리의 편의에 맞춰 임의적으로 조정되었다. 성곽도시의 붕괴와 성문의 불안정한 상황은 전근대의 성문이 근대로 전환되는 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성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활용 방향은 현재의 성문 인식이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문의 전근대에서 현대로의 변환점을 일제강점기로 판단하고, 당시 성문의 변화를 추적하여 현재 성문의 역할과 의미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성문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어있는 성문 건축의 도시적 맥락을 채우고자 한다.

---

2) 주요 성문들은 중요도로망의 통과지점에 위치하고 그 앞은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도시 계획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읍성의 도시공간 형성과 경관 조성의 상징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응묵, 『한국 성곽의 성문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3

3) 도성 성문은 기우제와 기청제 등 국가 제사와 헌괵례와 같은 국가행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오규성, 『조선시대 궁궐 및 도성 중층문루의 기능과 구조』,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16, 210-233쪽

1.2 선행연구 검토

성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조선 시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성곽 연구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거나, 성문의 문루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 시대 성문에 대한 연구는 이응묵의 연구를 시작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성곽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 당시 남겨진 성문들을 바탕으로 성문의 구성요소 파악과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기초적인 연구의 틀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4]. 이후 손영식은 한국 성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성곽에 대한 개괄적인 유형 분류와 구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여기에 성곽시설의 한 부분으로 성문 건축의 유형 분류를 진행하여 개괄적인 성문의 특징을 파악하였다[5]. 이러한 조선시대 성문에 대한 연구는 우정희의 연구에서 국내 잔존 성문들을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문루의 비례체계까지 고찰하는 연구까지 정리되었다[6]. 이어진 오규성의 석사논문에서는 성문의 문루를 세분화하여 중층 문루에 집중하였다. 중층 문루의 분포, 축조 목적, 그리고 기능적 역할을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7]. 이어진 오규성의 박사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층 문루에 대한 고찰을 발전시켜 도성과 궁궐에서 지어진 문루의 구체적인 기능을 파악하고, 기능에 따른 구조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계통적 유형 분류 체계를 구성하였다[8].

이렇게 조선 시대에 집중한 성문 연구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며 축적된 바와 달리, 일제강점기 성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시기의 성문 연구는 성곽시설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도시 상황에 집중하여 성문 주변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오타 히데하루는 일본이 조선에서 시행한 고적 조사와 성곽 정책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은 내부 정책의 방향에 의해 성곽시설들을 선택하여 남겨두었으며, 이를 통해 식

---

4) 이응묵, 『한국성곽의 성문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성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3
5) 손영식, 『한국성곽의 연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6) 우정희, 『성곽문루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읍성문루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7
7) 오규성, 『중층문루 건립배경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3
8) 오규성, 『조선시대 궁궐 및 도성 중층 문루의 기능과 구조』,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16

민지배의 상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9]. 오타 히데하루의 연구가 일본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성곽시설의 해체를 살펴봤다면 김혜미의 연구는 초기 성곽 훼철의 양상을 사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혜미는 1910년까지 도시별 철거 과정을 주도 세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10], 이를 통해 성벽 훼철 과정에서 철거되는 성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자형은 일제강점기 숭례문 주변 도시 조직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여, 성문 주변의 도시적인 맥락이 변해가던 과정을 정리하였다[11].

한편, 일제강점기 문화재의 조사와 정책을 다룬 연구에서는 성문에 집중한 연구는 없으나 다른 고건축물들과 함께 다루어져, 성문의 문화재로서 변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강현의 연구는 조선총독부 기록물과 도면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정책, 그리고 수리공사를 고찰하여, 일제강점기 문화재 연구의 기반을 제시하였다[12]. 이어진 이순자의 연구는 고적 조사 사업에 집중하여 조사 주체별 조사 성격과 성과를 밝히고, 일제강점기 동안 이루어진 고적 조사의 흐름을 보여주었다[13]. 이와 달리 서효원의 연구는 수리공사에 집중하여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를 기반으로 보존 정책 변화 과정과 「보존령」 이후 구체적인 수리공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14].

이처럼 지금까지의 성문 연구는 조선 시대에 집중하여 진행되었고, 일제강점기의 연구는 성곽시설, 도시, 문화재 등 서로 다른 연구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어졌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성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통합적인 연구의 축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성문 연구를 정리하고, 성문 자체의 인식과 기능의 변화 과정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문 연구의 부족한 영역을 채우고, 전근대와 현대 사이에 분절된 성문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을 기대한다.

---

9) 오타 히데하루, 『日本의 「植民地」 朝鮮에서의 古蹟調査와 城郭政策』,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10) 김혜미,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6
11) 최자형, 『숭례문과 주변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7
12) 강현, 『日帝强占期 建築文化財 保存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5
13)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7
14) 서효원, 『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초 성벽 훼철 이후 성문에서 나타난 활용 방식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 시기를 1907년 본격적인 성벽 훼철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이전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해방 이후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전근대의 성문이 현재의 성문 인식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으며, 이러한 성문의 변화 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대였다.

연구 대상 선정의 기준은 일제강점기 동안 남겨져 변화의 흔적을 보여줄 사료가 충분한 성문들과 함께 철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성문들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 세키노 타다시가 1909-11년 진행한 고적 조사에서 갑과 을 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성문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남겨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성문들이 위치한 6개 주요 도시의 성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6개 도시는 서울, 수원, 전주, 평양, 개성, 의주로 각 도시의 성문들은 잔존과 훼철의 양상을 모두 보였으며, 시대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대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성벽 훼철 이후 성문 철거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했다. 먼저 조선 시대 설치된 성문의 규모를 읍성의 분포를 통해 살펴보아야 했다. 읍성의 분포는『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여재촬요』와『증보문헌비고』등 지리지를 기반으로 선행 연구의 분석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벽 훼철 이후의 상황은 한국근대지리정보 GIS 서비스[15]를 활용하여 잔존 성문과 읍성의 분포를 조사하고 앞선 자료와 비교하여 성문 철거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주요 6개 도시의 성문 분석은 사료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성문에 대해 기록한 조선총독부 관보, 수리공사 문서, 근대 지도 자료, 신문기사, 잡지 논설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성문에 대한 인식, 활용 용

15) 한국근대지리정보는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G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도의 기호정보를 GIS 기반으로 구축한 아카이브이다. 기본도로 활용된 지도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1919년 1:50000 축척의 '조선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1919년에 가까운 전후에 발행된 지형를 보완하여 작업되었다. 1:50000의 축척으로 제작되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소규모 성문들이 일부 누락되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인 성문의 잔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https://db.history.go.kr/hgis/mod_g1/main.do

도, 보존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외에도 당시 일본에서 홍보 목적을 위해 제작한 사진엽서, 선교사나 여행객이 찍은 사진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16]. 이를 바탕으로 성문의 변화는 일제강점기를 식민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식민 초기는 전근대적 성격이 약해지는 시기이며, 후기는 근대적 성격이 확립되는 단계로 성문의 활용 방식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대상 도시를 기준으로 각 시기의 특징을 살펴본 뒤에 성문을 인식하는 태도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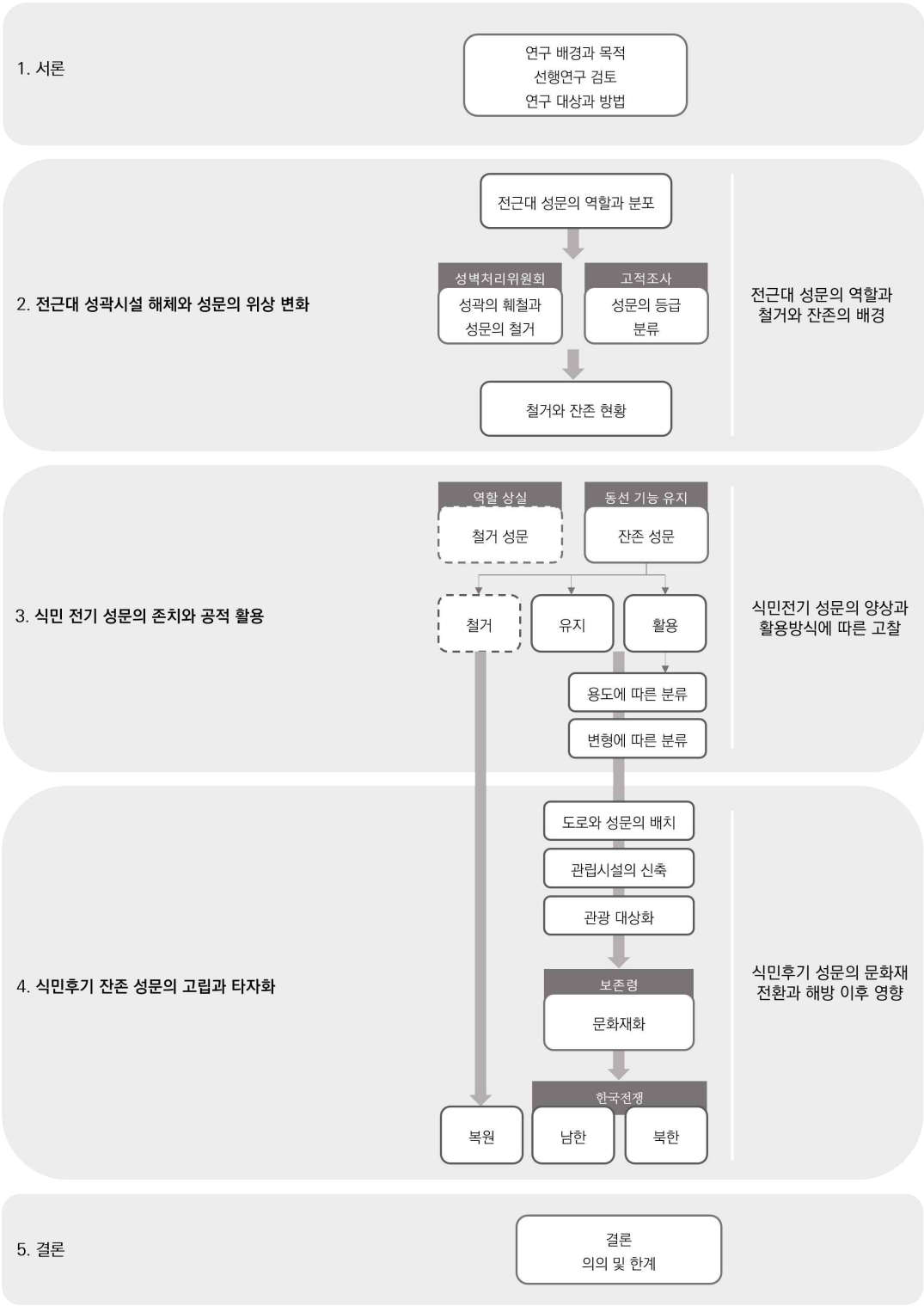
2장에서는 전근대 성문의 역할과 성문 철거의 배경과 양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성곽도시의 형성을 고찰하고, 성문의 역할과 유형 분류를 살펴봄으로 전근대 성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근대 성문의 상징과 역할은 성벽 훼철과 함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벽 훼철의 배경과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 당시 진행된 고적 조사를 통해 일제가 잔존 성문에 가졌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성벽 훼철 이후 식민전기 성문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철거 성문의 양상을 파악하여 잔존 성문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렇게 남겨진 성문들에 대한 보존 방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성문들은 근대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새롭게 전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나타난 건축적인 변형을 분석하여 식민전기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문루의 기능적 활용이 사라지고 상징적 가치가 강조되는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문과 도로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1920년대 이후 관립시설의 확보, 관광 정책의 활성화와 같은 도시적인 상황이 성문을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문화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완전해졌으며, 식민전기와 달라진 보수·복원 공사의 방향을 토대로 이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성문의 역할은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성문이 가지는 위상과 연결되며, 두 국가의 성문 보존 및 복원 방식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16) 논문에 사용한 근대 성문 이미지 자료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총독부문서와 유리건판, 조선엽서아카이브와 『目でみる 昔日の朝鮮』, 国書刊行会, 1986,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민속원, 2009의 단행본을 인용하였으며, 근대 지도와 조감도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과 교토대 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1. 서론
연구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대상과 방법
2. 전근대 성곽시설 해체와 성문의 위상 변화
전근대 성문의 역할과 분포
성벽처리위원회
성곽의 훼철과 성문의 철거
고적조사
성문의 등급 분류
철거와 잔존 현황
전근대 성문의 역할과 철거와 잔존의 배경
3. 식민 전기 성문의 존치와 공적 활용
역할 상실
철거 성문
동선 기능 유지
잔존 성문
철거
유지
활용
용도에 따른 분류
변형에 따른 분류
식민전기 성문의 양상과 활용방식에 따른 고찰
4. 식민후기 잔존 성문의 고립과 타자화
도로와 성문의 배치
관립시설의 신축
관광 대상화
보존령
문화재화
한국전쟁
복원
남한
북한
식민후기 성문의 문화재 전환과 해방 이후 영향
5. 결론
결론
의의 및 한계

[그림 1-1]. 연구의 흐름

II. 전근대 성곽시설 해체와 성문의 위상 변화

2.1 조선시대 성문의 도시적 기능과 상징적 역할
2.2 일제의 성곽 철거와 전근대적 위상의 위축
2.3 소결

2.1 조선시대 성문의 도시적 기능과 상징적 역할

2.1.1 성곽도시의 형성과 성문의 역할

1) 성곽의 축성과 성곽도시의 형성

성곽은 “군사적, 행정적인 집단의 공동목적을 갖고 거주 주체의 일정한 공동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그 구조물이 연결성을 갖는 전통건조물” 이다[17]. 성곽의 발생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 시설에서 시작되었다. 문헌상으로 우리나라 성곽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사기』의 조선전에서 평양성을 언급하고 있다[18]. 이는 이미 고조선부터 성곽을 통한 도시 방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성곽 유구는 삼국시대부터 발견되며 나무로 엮는 목책에서 토성과 석성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주요 거점 지역을 지키고자 설치된 성곽들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발달한 성곽시설은 국가 주도 하의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이었던 양성지(梁誠之)가 세조(世祖)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우리 동방은 성곽의 나라입니다.”라고 언급할만큼[19] 성곽은 국가를 설명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성곽의 종류는 거주 주체, 축성 목적, 지형, 위치, 재료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20], 본 연구는 축성 목적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성곽의 축성 목적은 군사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산성과 도·읍

---

17) 손영식, 위의 책, 1987, 18쪽

18) “한(漢)이 위만을 침공했을 때 왕검(王儉)에 이르니 우거(右渠)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 반영환, 『한국의 성곽』, 1978, 9쪽 재인용

19) 양성지는 우리나라가 성곽의 나라임을 강조하며, 고려의 왕들이 성(城)의 나쁨으로 치욕을 당했으니 미리 성곽을 갖추어 방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3번째 기사

20) 거주주체에 따라서 도성, 왕성, 행재성, 읍성, 기타성, 목적에 따라 행정적인 성과 군사적인 성, 지형에 따라 산성, 평지성, 평산성, 지리적 위치에 따라 국경성, 해안성, 강안성, 내륙성, 축성재료에 따라 목책성, 토성, 석성, 토석혼축성, 전축성으로 구분된다. 손영식, 앞에 책, 49-114쪽

성으로 구분된다. 산성은 방어를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 강조된 성곽이며, 성곽의 유형 중 가장 먼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을 이용하여 산세를 따라 성곽들이 축조되었고, 이를 이용한 방어전략을 통해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산성의 유형은 성 정상을 중심으로 둘러지는 퇴뫼식 산성, 계곡을 포함하며 축성되는 포곡식 산성, 두 가지 모두 나타나는 복합식 산성이 있다. 삼국시대부터 성곽의 주류를 이루었던 산성은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과 같은 도성 방어를 위한 산성부터 북방 국경 지역을 막기 위한 산성까지 국방을 위한 주요 군사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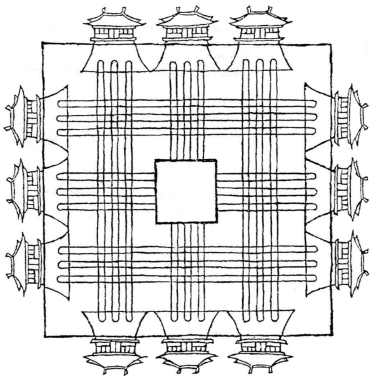
도성은 국가의 행정적 중심지인 왕궁과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삼국시대의 도성은 산성을 함께 축성하여 이중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21]. 평상시의 활동은 도성에서 이루어지되 전쟁이 발생하면 산성에서 대응하였다. 도성의 구성 체계는 중국 고대 도시계획의 원칙을 서술한『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에서 영향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주례 고공기에서는 정방형의 성곽의 규모와 방위별 3문의 설치, 내부의 격자형 도로망과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주요 시설 배치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것이 그대로 도성에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도성 계획의 이상향으로 이해되었다. 한양도성의 경우 이러한 예제를 기반으로 계획하되 풍수지리설과 함께 조정되었다[22]. 성곽을 기반으로 각 방위에 성문을 설치하지만, 3개의 문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며 성벽과 성문이 자연 지세에 맞추어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 중심시설의 배치에서 왼쪽의 종묘와 오른쪽은 사직단은 예제를 따랐으나, 시장은 궁궐 뒤가 아닌 앞쪽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도성의 계획은 지방 읍성의 구성까지 영향을 주었다.

읍성은 각 지방 도시에 세워진 성곽으로 주민과 거점의 보호하는 군사적 기능과 관아를 비롯한 통치시설을 수용하는 행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읍성은 고려말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지역과

---

21) 고구려의 국내성과 위암산성, 평양성과 대성산성, 백제 사비의 도성과 부소산성, 신라의 월성 인근의 명활 산성, 남산성, 북형산성, 서형 산성 등이 이러한 형태를 보여준다.
22) 김동욱,『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0, 155-159쪽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해안지역에 밀집하여 설치되었다[23]. 이는 북쪽으로는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고 남쪽으로는 왜적의 침임을 막기 위한 방비책이었다. 조선 개국 초반에는 방어 시설로서 읍성보다 산성에 중요도를 두어 읍성 축성에 소극적이었으나, 세종대부터 남쪽의 3도를 중심으로 읍성 강화책을 시행하여 문종 대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24]. 임진왜란 이후 숙종과 영조 대에 이르러서는 토성으로 축조된 읍성들을 석성으로 개축하며 중앙집권적 행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25]. 이렇게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진 읍성은 지방 도시를 나타내는 특징이 되었으며, 성곽의 의미와 동시에 행정 단위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림 2-1] 周王地圖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国中九經九緯 經涂九軌.
左祖右社, 面朝背市."

2) 성문의 배치와 역할

도성과 읍성은 군사적 목적과 함께 행정적 목적이 강조된 성곽이다. 도시 내부의 구성은 성곽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특히 성곽의 성문은 주요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때때로 방어 외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도성이나 규모가 큰 성곽은 4대문과 4소문을 설치하고 암문과 수문 등 여러 성문을 설치하였으며, 대부분 읍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4개의 성문을 두었다.

23) 반영환, 위의 책, 27쪽
24) 이수진, 『조선시대 읍성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논문, 2019, 25-29쪽.
25) 이수진, 위의 논문, 2019,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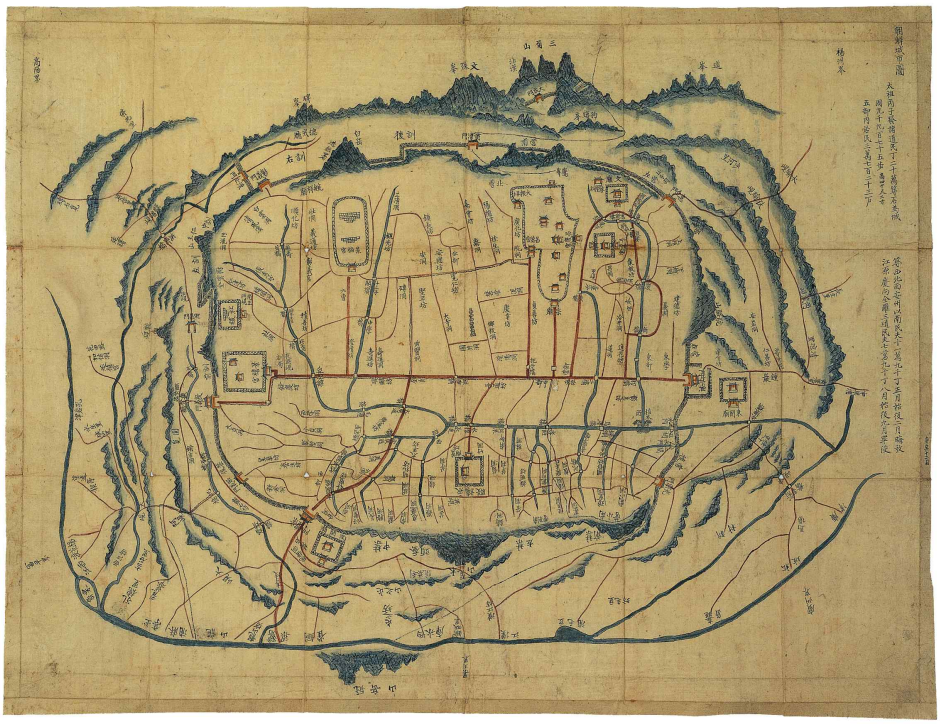
성문은 기본적으로 각 방위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일부 읍성의 경우 북측에 성문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방이 막힌 성곽에서 성문은 유일한 출입구가 되었으며 내외부를 통과하는 도로망이 형성되는 기점이 되었다. 먼저 동문과 서문을 잇는 동서대로는 중심도로가 되어 도로망의 기준을 만들었다. 동서대로의 위쪽에는 궁궐, 관아, 객사와 같은 통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아래에 시장과 주거 시설과 같은 생활공간이 배치되었다. 남문에서 뻗어 나와 통치시설과 수직으로 만나는 대로는 왕이나 사신이 방문할 때 사용하는 상징성을 가진 의례 동선의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도로의 성격은 시작점이 되는 성문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었고, 방위에 따라 성문의 위계와 역할이 달라졌다.

4대문과 같이 각 방위에 설치된 성문들은 도시의 정문 역할을 담당하며 문루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위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성문 중 남문이 성곽을 대표하는 중심 성문이 되었으며 지형에 따라서 동문과 북문이 이를 대체하였다[26]. 특히 도성과 주요 지방 도시에서는 도시 입구를 상징하는 주요 성문에 중층 문루를 구축하여 위계의 차이를 두었다. 때문에 성곽의 남문이 주로 대상이 되었으며, 때에 따라 동문까지도 중층 문루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성문에 설치된 문루는 전쟁 시 명령을 내리는 지휘소가 되었으며, 평상시에는 성곽 외부를 감시하는 출입 관리시설이 되었다. 또한 문루에 종을 설치하거나 문루 위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기능과 조문을 문루에 걸거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며 소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27]. 때때로 입추 이후 장마가 끝나길 기원하는 영제(禜祭)가 도성의 4대문에서 거행되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왕에게 포로를 바치는 의식인 헌괵례가 숭례문에서 이루어진 것에서 의례적인 기능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28].

이렇게 성문은 중심도로의 기점이 되는 동선의 기능과 문루를 통해 방어와 통제, 의례의 기능이 나타났다. 성문의 역할과 위계는 성곽도시의 구성에 따라 부여되었으며, 이는 성문이 전근대 도시 질서에 기반을 둔 건축이었음

26) 동문이 정문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평양성에서 수로와 연결된 대동문이 정문의 역할을 담당한 것을 예시로 볼 수 있으며, 북문을 정문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고창읍성의 북문 사례가 있다.
27) 오규성, 위의 논문, 2013, 109-120쪽
28) 오규성, 위의 논문, 2016, 210-233쪽

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 전근대 성곽도시에서 나타난 변화는 기존 성문의 정의를 뒤흔들었으며, 새로운 형성된 도시 상황 속에서 재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림 2-2] 도성에서 성문과 도로의 연결(조선성시도, 1830)

2.1.2 조선시대 성곽도시와 성문 분포

성문은 성곽에서 가능하면 4방위에 성문을 설치했으나, 지형 여건에 따라 1~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평양성과 같은 규모가 큰 성곽에서는 10여개소가 넘는 성문이 설치되기도 하였다[29]. 때문에 조선 시대 축조된 성문의 정확한 개소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곽도시의 기본 단위인 읍성의 분포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지방 읍성은 세종대 읍성 강화책과 함께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세종실록』의 「지리지」(1454)에 기록된 행정구역 수는 335개소로 그 중 읍성은 96개소가 축조되었다[30]. 읍성 축성의 초반기에는 전체 행정구역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에만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읍성은 이후 지속적으로 축성되어 성종 대 기록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 그 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에 기록된 행정구역의 개수는 330개소였으며 도성을 포함하여 160개의 도시에 읍성이 설치되었다고 전한다. 행정구역 중 산성과 행성으로 축조된 성곽과 평양부와 같이 내성과 외성이 있는 도시의 사례가 30개소 더 있어 190개소의 도시에 성곽이 당시 존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179개소의 성곽이 석축으로 조성되었으며 토성은 11개소였다[31]. 읍성의 설치가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충청도 20개소, 경상도 45개소, 전라도 39개소, 함경도 23개소, 평안도 33개소로 남부 연안 지역과 북측 국경지대에 집중되었다. 이는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여 읍성을 방어 목적으로 축조했음을 보여준다. 임란 이후의 기록인 『여지도서』(1750)에서는 334개의 행정구역 중 107개소에만 읍성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전쟁으로 상당수의 성곽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32]. 숙종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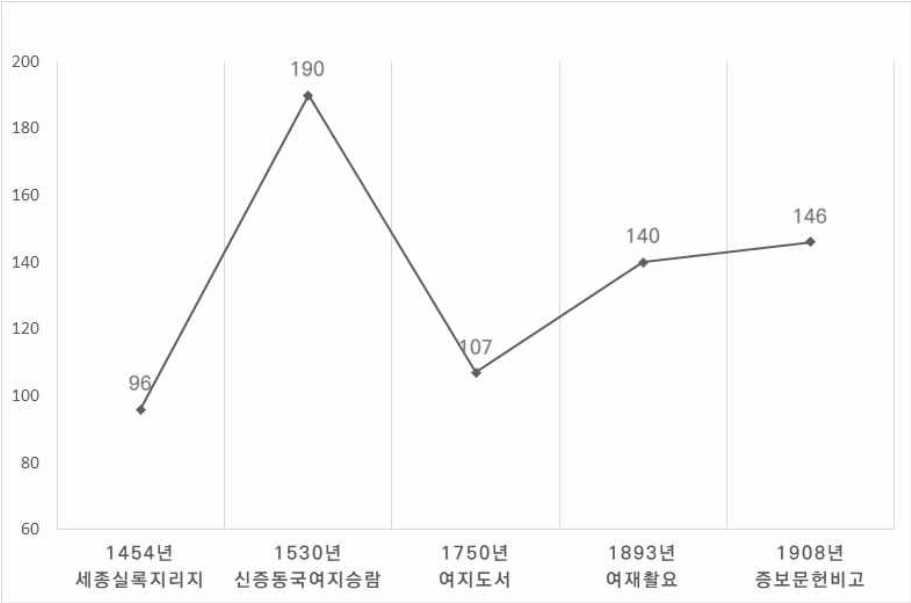
29) 손영식, 위의 책, 62쪽

30) 충청도 15개소, 경상도 27개소, 전라도 20개소, 황해도 4개소, 강원도 6개소, 평안도 16개소, 함길 8개소로 총 96개의 행정구역에 읍성이 설치되었다.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읍성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3 15쪽.

31) 도시에 따라서 읍성외에도 성곽도시가 아닌 산성, 장성, 행성 등 방어를 위한 성곽들이 있었다. 사료에서는 이러한 성곽이 555기 가량 축성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전상운, 『신편한국사』 27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32)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3, 14쪽

영조 대를 거치며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고 새롭게 읍성들을 축조했지만 이전만큼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성곽 상황은 1893년과 1908년 제작된 『여재촬요』와 『증보문헌비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재촬요』는 140개소, 『증보문헌비고』는 146개소의 읍성 개소가 기록되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두 사료의 비교를 통해 누락 읍성을 파악하여 식민 통치 이전 조선 말의 읍성 개소는 140개소에서 149개소의 성곽이 존재했음을 추정하였다[33].



[그림 2-3] 조선시대 읍성 개소의 변화

33)

문헌 / 지역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합계
『여재촬요』	1	4	18	30	40	9	71	18	19	146
『증보문헌비고』	1	4	18	30	35	9	7	17	19	140

[표 2-1]. 1893-1908년 성곽 잔존 상황

김혜미,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6, 4-5쪽

이처럼 조선 초기 지방 도시에 활발히 축성되던 읍성은 16세기에 이르면서 전체 행정구역의 과반을 차지할 만큼 축조되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그 개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기존 성곽을 보수하고 새롭게 개축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전만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 국권이 넘어갈 시기에는 140-149개소 가량의 읍성이 남겨져 있었다.

2.1.3 성문의 구성요소와 분류

1) 성곽시설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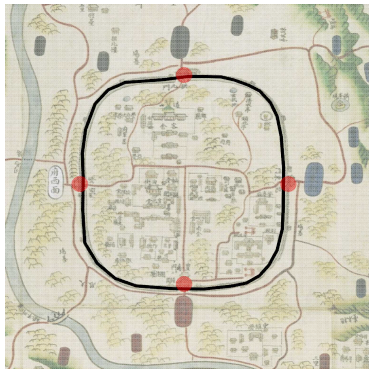
성곽의 구성요소는 출입구인 성문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성곽의 틀을 이루는 성벽시설 그리고 성곽 내외에 세워진 방어 시설들을 포함한다. 성곽에서 성문은 출입을 관리하고 물자의 운송을 목적으로 통행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 전쟁 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었다. 이에 성문 주변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었다[34]. 성문 외부의 이중 성벽으로 구축하는 옹성과, 성문 좌우에 설치된 치인 적대 등이 그것이다. 성벽의 기본 구조는 몸체인 체성으로 이루어지며 성벽 위에서 군을 보호하기 위한 여장, 성벽을 돌출시켜 정면이나 측면에서 적을 공격하는 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적의 진입을 방해하는 해자와 녹각, 군의 지휘와 정보 전달을 위한 장대와 봉수 등 성내외시설들이 이를 보완한다.

특히 성곽을 통해 도시를 형성한 조선 시대 도·읍성에서는 성곽의 구성요소를 성벽과 성문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성벽은 경계의 구분이자 성곽도시 구성의 틀이었다. 이러한 선적인 경계는 전근대 도시의 범위를 정의하고 내외부의 질서를 구분하였다. 성문은 이러한 경계선을 통과하기 위한 통로였다. 성벽으로 구성된 도시 내외부를 출입하는 유일한 동선이었기에 주요 중심도로의 기점은 성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벽을 통해 설정된 선적인 경계에서 성문은 점적인 지점이 되어 도시를 순환시켰다.

---

34) 손영식, 위의 책, 117쪽

[그림 2-4] 성곽 다이어그램



[그림 2-5] 조선시대 성곽 구조

2) 성문의 구성요소

성문은 원활한 통행과 관리를 위해 성곽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방어 시설로서의 약점이 명확하다는 역설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은 성문이 방어의 목적뿐만 아니라 도로의 통제, 행정, 상징성과 같은 도시 운영과 관련된 기능들을 수용시켰다. 따라서 성문은 도시의 위상과 그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위계가 구분되었고 이는 성문의 구성요소들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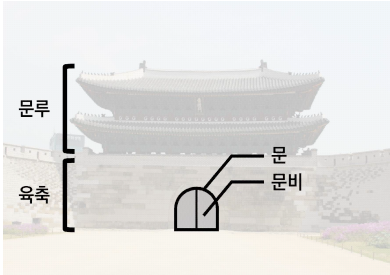
성문의 구성요소는 육축, 문, 문비, 문루로 이루어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포함된다[35]. 육축은 성문에서 성벽과 이어지는 석축을 뜻한다. 문은 이러한 육축 중앙에 설치된 직접적인 통로이며 문짝인 문비가 가운데 설치되었다. 그리고 육축 위에는 목조건축물인 문루가 축조되어 성문의 구성을 이루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성곽과 성문에 따라 육축부 없이 문루만으로 세워지거나, 문루가 없이 문만 설치되는 등 성문의 유형과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 성문에는 4가지 요소가 대부분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위계가 높은 성문은 중층 문루를 설치하여 다른 성문들과 구분하기도 하였다.

성문에 부여된 역할은 크게 육축의 기능과 문루의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성벽에서 이어진 육축은 문과 문비가 설치되어 동선을 관리하는

35) 손영식, 위의 책, 125쪽

기능을 가졌다. 이는 도로와 연관성을 가지며 연결된 도로의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영향을 받았다. 육축 위에 설치된 문루는 성문의 상징성과 건축 공간을 통한 용도적 기능을 가졌다. 문루에 부여된 상징과 용도는 전근대 성곽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도시 상황의 변화는 이러한 기능의 상실과 전환을 가져왔다.

[그림 2-6] 성문 다이어그램



[그림 2-7] 성문의 구성요소

3) 성문의 유형분류

성문의 유형은 축성 목적과 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정문은 방위에 맞춰 세워진 성문으로 중심 대로와 연결되어 성곽의 주요 통로가 된다. 암문은 성벽 중간에 문을 설치한 성문으로 일반적으로 문루와 육축을 설치하지 않았다. 수문은 배수를 위해 설치된 성문으로 수원 화홍문이나 한양 도성의 이간수문과 같이 문이 홍예로 구성되기도 하고, 성벽 중간에 통로만 뚫기도 하였다[36].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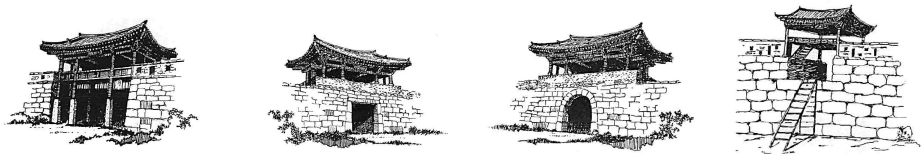
암문

수문

[그림 2-8] 축성 목적에 따른 분류

36) 이응묵, 위의 논문, 1983, 18-23쪽

문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개거식 성문, 평거식 성문, 홍예식 성문, 현문식 성문으로 분류된다. 개거식 성문은 문의 상부가 개방되는 형태로 문루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루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평거식 성문은 문의 상부가 장대석이나 판석을 설치하여 구성하는 형태이다. 홍예식 성문은 이러한 개구부를 홍예 모양으로 구성하여 비교적 위계가 높은 성문에 설치되었다. 현문식 성문은 산성에 주로 설치하여 출입을 어렵게 만드는 목적으로 축성되었다[37].



개거식 성문 평거식 성문 홍예식 성문 현문식 성문

[그림 2-9] 개구부 유형에 따른 분류

성문 위에 설치된 문루의 경우 하부에 육축 설치 유무에 따라 초루(譙樓)와 누문(樓門)으로 구분된다. 초루는 육축 위에 문루는 설치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큰 성곽의 성문에 주로 설치되었다. 누문은 하부에 석축을 두지 않고 문주를 세워 누각으로만 성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방 읍성에서 개거식 성문 유형으로 설치되었다[38].

[그림 2-10] 초루(譙樓)

[그림 2-11] 누문(樓門)

37) 손영식, 위의 책, 128-132쪽
38) 우정희, 위의 논문, 2007, 16-17쪽

2.2 일제의 성곽 철거와 전근대적 위상의 위축

2.2.1 '성벽처리위원회' 설립와 성곽 훼철의 본격화

전근대 성곽과 성문은 일본에 의해 성벽 훼철이 진행되며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조선 시대 도성과 읍성은 성곽이 만드는 경계 안에서 생활과 통치 공간의 질서를 갖추었기 때문에, 성곽시설의 훼철은 전근대 도시의 해체를 가져왔다. 성문 또한 성곽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군사적, 행정적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는 식민 초기 상황 가운데에서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행된 성곽시설의 훼철은 대한제국보다 일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당시 도시 재편이 자발적인 의도가 아닌 타자에 의한 수동적인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성곽도시의 해체는 외부인의 유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을 통해 조선에서 거류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였다. 확보된 거류지는 조선에서 그들의 기반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으며, 두 차례 전쟁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일본인의 수는 개시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러일전쟁을 거치며 내륙까지 침투하였다[39]. 이러한 유입은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며 가속하였고, 조선의 도시에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였다[40]. 거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의 거점은 본래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성 내부보다 주로 성 외부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신시가지를 형성하고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구도심과 신시가지를 가로막는 성곽시설은 걸림돌이 되었고, 이전의 성문을 통해서만 진입하던 통행 방식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교통의 불편과 성곽시설의 효용성을 이유로 성벽과 성문의 훼철에 대해 논의되었다.

조선은 고종 대까지도 성곽시설을 꾸준히 보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고

39) 이연경, 한성부 일본일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 1885-1910년까지 도시환경변화의 성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3, 173-175
40) 이연경, 위의 논문, 2013, 70-76

종 이전 대원군은 1869년에 서울 흥인지문을 대대적으로 중건하였으며, 지방 읍성과 산성의 수축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는 대원군이 성곽을 고적이 아닌 군사시설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1]. 이후 집권한 고종의 정책에서도 성곽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파괴보다 이를 유지하며 도시근대화를 이루어내려는 노력이 있었다[42]. 하지만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커진 일본은 조선의 성곽을 적극적으로 철거하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결국 일본은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1907년 고종을 폐위시키며, 그들에 의한 조선 성곽에 대한 정책을 실행시켰다.

전국 성벽에 대한 훼철은 도시마다 시차가 조금씩 있지만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지방 성곽의 철거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비교적 초기에 성벽 훼철이 진행된 평양의 경우,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신시가지와 맞닿아 있던 내성의 남쪽부터 대동문까지의 성벽을 철거한 것이 확인된다[43]. 대구에서는 1905년부터 대구 군수 박중양과 일본 거류민단의 주도로 성벽 훼철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1906년 대구 성벽의 절반을 철거하였다[44]. 이처럼 지방에서 서서히 진행되던 성벽 훼철은 실권을 잃어가던 1907년 6월 22일 대한제국 내각에서도 친일 세력인 이완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가 아뢰기를,

---

41) 오타 히데하루, 위의 논문, 2002, 13쪽

42) 고종이 추진한 도시근대화사업까지도 성벽과 성문이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1900년 4월 서대문-종로-청량리 간의 전기궤도가 개통될 때 성벽을 파괴하지 않고 성문을 통과시켰고, 1902년에는 남대문과 서대문의 단청을 새로 하고 성벽을 보수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타 히데하루, 위의 논문, 14-16쪽

43) 성벽 훼철이 초기에 진행된 평양의 경우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신시가지와 맞닿아 있던 내성의 남쪽부터 대동문까지의 성벽을 훼철하고 도로를 개수하였다. 일본병참사령부에서 대동문 서쪽부터 남문 성벽까지 허문 후 도로를 만들겠다는 보고를 통해 10월 초순 대동문 성 벽이 훼철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혜미, 위의 논문, 17-18쪽. 김민아의 논문에서는 1902년 평양시가전도와 1906년 평양전도를 비교하여 평양성 남측 성벽의 훼철을 확인하였다. 김민아, 정인하, 「조선 후기 이후 평양의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평양성도와 1914년 평양부 지적원도 비교를 통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9(11), 2013, 221쪽

44) 대한제국 내각에서는 이에 대해 박중양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이토 히로부미와의 친분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내부의 성곽 훼철에 대한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혜미, 위의 논문, 2016, 19-20쪽

"동쪽 문루와 남쪽 문루의 좌우 성첩을 헐어버릴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미 주청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성벽은 교통 중심 도로에 있어 장애가 될 뿐이고 유사시를 미리 방비하는 데는 실로 유익할 것이 없으니 속히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에게 책임지고 헐어버리도록 함으로써 한없이 큰 폐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45].

이는 도로 교통의 문제와 방어 기능의 비효용성이 당시 성벽 훼철에 주요한 이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1900년대 초반까지 고종이 추구한 도시근대화사업과 방향성이 다른 점에서 대한제국이 성곽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 체결로 내각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이 6일 뒤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46]하며 전국적인 성곽시설 훼철이 본격화되었다[47]. 그 결과 경성뿐만 아니라 대구, 남원, 전주 등 지방 읍성의 훼철을 결정하며 공사 범위를 확장 시켰다. 이로 인해 경성 숭례문과 흥인지문의 성벽이 철거되었고, 대구와 남원, 전주의 성벽과 성문들이 사라졌다. 이듬해 9월 성벽처리위원회는 폐지되었으나 통감부의 지방국과 토목국이 인계받아 업무를 이어나갔다. 이후 1910년 「읍성철거령」이 제정되며 제주 읍성을 비롯하여 대부분 지방 성곽과 성문들이 훼철되었다. 성벽처리위원회의 설치는 전국적인 성벽 훼철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 기점으로 성문의 위상이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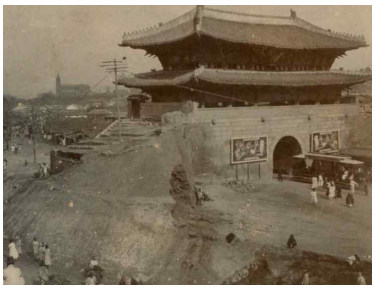
전근대의 성벽과 함께 출입 통제와 방어의 기능을 담당했던 성문은 성벽 훼철이 진행되며 본래의 역할을 상실했다. 특히 성벽 훼철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도로의 건설이었기 때문에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 놓인 성문은 우선적인 처리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목적성을 잃은 다수의 성문이 철거의 대상이 되어 성벽과 함께 사라져갔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졌으며, 이전과 다르게 인식되었다.

---

45)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6월 22일 陽曆 4번째기사

46)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7월 30일 陽曆 1번째기사

47) 성벽처리위원회의 설치가 내각을 장악한 후 6일 만에 착수된 정책인 점에서 일본이 조선 성벽처리에 대해 주요 안건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2]
양측 성벽이 훼철된 숭례문

[그림 2-13]
남측 성벽이 훼철된 흥인지문

2.2.2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성문 등급 분류

성곽시설이 철거되던 시기, 일본은 조선에 남겨진 고적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들의 기준에서 필요한 고적들을 선택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이 조선 고적 조사를 통해 얻고자 했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성문들은 당시 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1902년 일본 정부가 당시 동경제국대학 조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에게 위탁하며 시작되었다. 1902년 7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경성, 개성, 경주의 고적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04년 동경제대에서 『韓國建築調査報告(한국건축조사보고)』를 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48]. 당시 조사된 성곽은 개성, 경성, 동래, 경주의 성곽과 북한산성이었으며, 성문에 대해서는 경성의 숭례문, 흥인지문, 소의문을 제외하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초기의 조사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대략적인 고적 상황을 판단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조선 고적 조사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본격적인 조사는 1909년부터 이루어진 조선 고적 조사에서 이루어졌다. 이전 조사를 담당했던 세키노 타다시는 통감부 탁지부건축소 고건축물 조사 촉

48) 『한국건축조사보고』의 서언에서 조사의 목적을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관찰하라. 깊지 않더라도 관계없다고 하였다”라고 밝히며, 초기에 이루어진 고적 조사가 학문적인 연구보다 침략정책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보여준다. 이순자, 위의 논문, 2007, 21-23쪽.

탁으로 임명되어 구체적인 고적 조사를 1915년까지 시행하였다. 조사는 불상, 석탑, 사적지 등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으며, 고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1909년부터 1911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1909년의 조사는 당시 탁지부건축소에서 새로운 관청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건물의 개량이 논의되었는데, 이에 따른 고건축의 보존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49]. 특히 고건축물 조사 목록이 지방 행정시설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총독부는 통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보호할 고건축물보다 보호하지 않아도 될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 본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50].

1909년부터 1915년까지의 조사 대상은 총 665건이었으며, 그 중 과반을 차지하는 464건이 고건축물이었다. 464건의 고건축물 대상 중 성문에 해당하는 사례는 10개 도시의 20개 건축물이 포함되었다[51]. 조사 목록에서 평가한 성문의 등급은 표 2-2와 같으며, 모두 문루가 설치된 성문이었다. 당시 조사 대상에 대해 갑, 을, 병, 정의 등급을 나누어 갑과 을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병과 정은 보호의 필요가 떨어지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경성, 의주, 개성, 평양, 수원 등 주요 도시의 성문들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 갑과 을의 등급으로 인식되었다. 고적 조사 목록 중 일제강점기 동안 잔존한 성문은 경성의 숭례문과 동대문, 개성 남대문, 의주 남문, 전주 풍남문, 평양 보통문과 대동문, 수원 성문이었다. 병 등급의 풍남문을 제외하고 모두 갑과 을 등급을 받은 성문들로 건축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대상들이 잔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을 등급의 성문들[52]과 병과 정 등급의 성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철거되었다. 을 등급을 받았지만 철거된 안주 청남루와 영변 남문과 같은 사례를 통해 성문의 잔존에는 건축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

49) 강현, 위의 논문, 2005, 42-43쪽

50) 통감부에서는 “옛 건축물을 새로이 행정시설에 전용하고 혹은 파괴되거나 철거의 위험이 있는 것은 그 중요도에 의해 보존”을 목적으로 했으며, 고건축물 조사목록이 객사, 군청, 향교 등 지방 행정시설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효원,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고건축물 목록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건축 조사의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5(5), 2019, 97-98쪽

51) 경성 남대문, 동대문, 개성 남대문, 안주 내성북문, 의주 남문, 전주 성북문, 성남문, 강화도 읍성남문, 강화도 성서문, 평양 보통문, 평양 대동문, 수원 성곽전부(4문), 나주 성동문, 성남문, 성북문, 성서문, 영변 남문 등이다. 이 목록은 이순자의 연구(2007)에서 정리한 고건축물 조사목록과 이를 분석한 서효원의 연구(2019)를 통해 파악했다.

52) 안주 청남루, 나주 동문, 영변 남문은 을 등급을 받았음에도 1910-20년대 철거되었다.

했지만 그 이외의 요인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문 훼철의 전체적인 상황과 잔존 성문의 양상과 더불어 식민 초기 이루어진 고적 조사가 일제강점기 동안 성문의 잔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도시	조사년도	성문	조사등급
경성(京城)	1909	숭례문(崇禮門)	甲
	1909	흥인지문(興仁之門)	丙
	1910		丙→乙
안주(安州)	1909	청남루(淸南樓)	乙
개성(開城)	1907	개성 남대문	甲
의주(義州)	1909	의주 남문	甲
전주(全州)	1910	공북루(拱北樓)	丙
	1910	풍남문(豊南門)	丙
강화(江華)	1909	읍성 남문	丙
	1909	읍성 서문	丙
평양(平壤)	1909	보통문(普通門)	甲
	1909	대동문(大同門)	乙
수원(水原)	1909	수원성곽전체	乙
나주(羅州)	1910	성 동문	乙
	1910	성 남문	丙
	1910	성 서문	丁
	1910	성 북문	丁
영변(寧邊)	1909	영변 남문	乙

[표 2-2]. 1909-11년 고건축물 조사 목록에 포함된 성문과 조사등급

2.2.3 성곽 훼철 이후 성문의 철거와 잔존

1) 전국적인 성문 철거와 잔존 상황

전국적인 성벽 훼철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문은 성곽과 함께 훼철되거나 성벽이 남겨지면서 함께 남겨졌고, 또는 성벽이 철거된 후에도 성문만 잔존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성문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벽 철거 이후 성문 잔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한 한국근대지리정보 GIS 서비스[53]를 활용하여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읍성과 성문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한국근대지리정보는 1919년도 '조선지형도' 기준으로 제작되어, 성벽 훼철 이후 성곽과 성문의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잔존 성곽과 성문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1919년 조선지형도에서 성문이 남겨진 읍성의 개소는 경성을 포함하여 30개소이다. 이 중 성벽이 온전히 남겨진 곳은 15개소였으며, 나머지 읍성들은 성벽이 훼철되어 성곽도시의 의미를 잃고 성문만 남겨졌다. 조선말 전국에 분포한 읍성의 개소가 140여 개소였던 점을 생각하면 성벽 훼철 과정에서 대부분의 읍성이 철거되었음이 확인된다.

성문이 잔존한 읍성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5개소, 충청도 4개소, 경상도 3개소, 전라도 3개소, 평안도 10개소, 함경도 2개소, 황해도 2개소로 경기도와 평안도에 비교적 많은 성문이 잔존했다. 특히 성곽이 훼철되지 않은 읍성 15개소 중 10개소가 평안도와 경기도에 포함되어 성벽의 훼철과 성문 잔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경성이나 평양성과 같이 규모가 큰 성곽은 성벽이 훼철되더라도 많은 성문이 남겨질 수 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읍성은 성벽이 훼철되며 성문도 함께 철거되거나 남문과 같이 위계가 높은 성문 1-2개소만 남겨졌다.

---

53) 한국근대지리정보는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G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도의 기호정보를 GIS 기반으로 구축한 아카이브이다. 기본도로 활용된 지도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1919년 1:50000 축척의 '조선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1919년에 가까운 전후에 발행된 지형를 보완하여 작업되었다. 1:50000의 축척으로 제작되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소규모 성문들이 일부 누락되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인 성문의 잔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http://db.history.go.kr/

지역	개소	도시명	성곽유무	잔존 성문
경성	1	경성	●	남대문, 동대문, 북문, 남소문, 동소문
경기도	5	개성읍성	●	남문
		수원읍성	○	남문, 동문, 서문, 북문, 북수문
		광주읍성	○	남문, 동문, 서문, 북문
		강화읍성	○	남문, 서문, 북문
		교동읍성	○	남문
충청도	4	남포읍성	○	남문, 서문
		홍성읍성	●	동문
		해미읍성	○	남문, 동문, 서문
		청풍읍성	●	서문
경상도	3	영천읍성	●	동문
		밀양읍성	●	남문
		상주읍성	●	남문
전라도	3	제주읍성	●	남문
		나주읍성	○	남문
		전주읍성	●	남문
평안도	10	평양읍성	●	(內城)동문, 서문, 북문, (中城)서문, (北城) 남문, 북문
		의주읍성	○	남문, 서문
		초산읍성	●	남문
		벽동읍성	○	남문, 서문
		삭주읍성	○	남문, 서문
		강계읍성	○	남문, 북문
		자성읍성	○	남문, 동문, 서문
		위원읍성	●	서문
		희천읍성	●	서문
		구성읍성	○	남문, 동문, 서문, 북문
함경도	2	길주읍성	○	남문, 서문, 북문
		갑산읍성	○	남문, 서문, 북문
황해도	2	해주읍성	●	남문
		수안읍성	●	동문

● : 성곽 철거, ○ : 성곽 유지

[표 2-3]. 1919년 조선지형도의 도·읍성과 성문 잔존 상황

이는 성문의 선택적 잔존과 남겨진 성문의 의미를 보여준다. 성곽이 남겨져 있으면 성문은 개별적인 상징성보다 성곽시설에 포함되어 도시에 들어오기 위한 실질적인 문의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성문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던 성벽이 사라지면서, 성문은 상징성이 높았던 일부만 선택되어 남겨졌고, 남겨진 성문은 사라진 성곽도시를 대변하는 상징의 집합이 되었다. 이는 성문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도시 상황 속에서 전근대적 상징성과 도시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며 남겨질 수 있었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 성문들은 철거되었음을 보여준다.

2) 주요 도시의 성문 철거와 잔존 상황

하지만 소규모 읍성 단위에서 철거되거나 잔존한 성문들은 그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성문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성문 건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은 사료를 필요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키노 타다시의 고적 조사에 포함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남겨졌던 성문들에 주목하였다. 고적으로 인식되며 잔존한 성문은 경성 숭례문, 흥인지문, 평양 대동문, 보통문, 개성 남대문, 의주 남문, 전주 풍남문, 수원 성문들이다. 이들이 속한 6개 주요 도시의 성문 상황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성문 건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표 2-4는 주요 6개 도시의 성문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성문의 잔존 경향이 확인된다. 앞선 조사와 같이 대부분 도시에서는 남문이 남겨지는 양상을 가졌다. 평양의 경우 동문인 대동문이 도시에서 남문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남겨진 문루의 방위는 다를지라도 그 경향은 다른 도시와 유사하다. 경성의 숙정문, 창의문이나 평양의 칠성문, 전금문, 현무문처럼 성곽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성문들이 남겨지는 경향도 확인된다. 수원의 경우 특이하게 성문 4개소가 모두 남겨졌는데, 이는 수원 성곽이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수원 성곽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키노 타다시의 고적조사에서 수원 성곽 전체가 을 등급의 보호 대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식민 초기부터 성곽 전체가 건축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서, 도시 발전 과정에서도 철거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수원이 근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철도와 농업시험시설 등 근대 업무 시설들이 구 읍성 외곽에 자리 잡으며 성곽 훼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54].

철거된 성문들은 주로 초기 성벽 훼철 시기에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도 시간차를 두며 철거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도시별로 성벽 훼철 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대체로 1910년대 전후로 철거되었다. 특히 경성의 성문들과 평양의 내성의 서문인 정해문의 경우, 성벽 훼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보다 늦게 철거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성문들은 성벽 훼철이 진행된 후에도 일정 시기 도시에 잔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문 존치의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철거 성문의 양상은 3장에서 다룬다.

한편 주요 도시의 성문들이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승지로서 가치가 주목되었다. 남대문, 동대문이 임진왜란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된다는 일본 내부의 입장이 있었다[55]. 평양의 경우에도 북성에 위치한 성문들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주요한 전승지로 여겨져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남겨진 성문들이 고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도 있다. 세키노 타다시의 고적 조사에서 특별 보호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성문들이 철거되지 않고 남겨졌다. 특히 성문의 건축적 가치는 문루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이렇게 형성된 인식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 제정까지 이어졌다. 본 연구는 여기에 문루의 건축적 활용성이 근대 도시가 필요로 하는 기능에 부합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성벽 훼철 이후 성문이 도시에서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지 못하면 철거되었다. 하지만 잔존한 성문들은 문루 공간을 이전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남겨질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대상으로 선정한 6개 도시의 잔존 성문에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성곽 문루의 활용 방식에 집중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

54) 경기도,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화성 팔달문·화성 화서문』, 1998, 54쪽
55) 오타 히데하루, 위의 논문, 2002, 26-31쪽

도시	성문명	방위	잔존유무	철거년도	조사등급
경성(京城)	숭례문(崇禮門)	남문	○	_	甲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문	○	_	乙
	돈의문(敦義門)	서문	●	1915	_
	숙정문(肅靖門)	북문	○	_	_
	광희문(光熙門)	남소문	●	1928	_
	혜화문(惠化門)	동소문	●	1939	_
	소의문(昭義門)	서소문	●	1914	_
	창의문(彰義門)	북소문	○	_	_
평양(平壤)	주작문(朱雀門)	남문(內城)	●	1907	_
	대동문(大同門)	동문(內城)	○	_	乙
	정해문(靜海門)	서문(內城)	●	1926	_
	칠성문(七星門)	북문(內城)	○	_	_
	정양문(正陽門)	남서문(中城)	●	1907 추정	_
	함구문(含毬門)	남동문(中城)	●	1907 추정	_
	육로문(陸路門)	동문(中城)	●	1907 추정	_
	보통문(普通門)	서문(中城)	○	_	甲
	경창문(景昌門)	북서문(中城)	●	1907 추정	_
	전금문(轉錦門)	남문(北城)	○	_	_
	현무문(玄武門)	북문(北城)	○	_	_
개성(開城)	회빈문(會賓門)	남문	○	_	甲
	숭인문(崇仁門)	동문	●	1910	
	선의문(宣義門)	서문	●	1910	
	보정문(保定門)	북문	●	1910	
의주(義州)	남문	남문	○	_	甲
	동문	동문	●	1916 이전	_
	서문	서문	●	1916 이후	_
	북문	북문	●	1916 이전	_

전주(全州)	풍남문(豊南門)	남문	○	_	丙
	판동문(判東門)	동문	●	1911	_
	상서문(相西門)	서문	●	1911	_
	중차문(中車門)	북문	●	1911	_
수원	팔달문(八達門)	남문	○	_	乙
	창룡문(蒼龍門)	동문	○	_	乙
	화서문(華西門)	서문	○	_	乙
	장안문(長安門)	북문	○	_	乙

[표 2-4]. 주요 도시 성문 철거 및 잔존 상황

2.3 소결

군사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은 점차 행정적인 성격이 강해졌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도성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곽에서 성문은 성의 내외부를 연결하고 통제와 소통의 기능을 하였으며, 때때로 의례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문은 성곽의 주요 방위에 자리하며 도시의 입구가 되어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조선에서 권력을 잡아가던 일본에게 성곽과 성문은 그들의 확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성곽 철거의 문제는 일본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었고, 일본은 1907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 체결된 직후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철거를 본격화시켰다. 성곽 시설의 훼철이 시작된 이후 수많은 성곽과 성문들이 사라졌으며, 침탈 이전에 140여 개소였던 성곽이 1919년에는 15개소 정도로 감소하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부 성문들은 철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남문과 같이 성문 중 위계가 높거나 고적 조사에 포함되며 일본에서 주목한 건축물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겨진 성문 건축들은 일본에 의한 타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 가운데 성문 건축은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으며 남겨져 변화의 양상을 보이거나 끝끝내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 채 철거되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동안 성문 건축에서 일어난 변화는 일본에 의한 '타자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자화'는 대상을 분리시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은 피지배 대상들을 열등한 타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56]. 이와 같은 타자화의 흔적이 일제강점기 성문 건축의 변화를 통해 확인된다. 이어질 3장과 4장에서는 성문 건축이 조선 성곽의 건축물에서 근대 도시의 건축물로 타자화되는 과정에 대해 밝히며, 그 과정의 차이점과 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

56)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출판사, 2006

Ⅲ. 식민전기 성문의 존치와 공적 활용

3.1 성문 철거와 존치 방향
3.2 문루 공간의 행정과 대외시설 전용
3.3 문루 형태의 유지와 변형
3.4 소결

3.1 성문 철거와 존치 방향

3.1.1 성문의 역할 상실과 철거 양상

1907년 대대적인 성벽 훼철 이후 진행된 성문의 철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성벽과 함께 철거되는 성문들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성벽이 훼철된 모든 도시에서 나타났으며, 대부분 성문 철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성벽 훼철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1910년대를 전후하여 주로 나타났으며, 도시마다 보이는 약간의 시기 차이를 통해 각 도시의 성벽 훼철의 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개별적인 성문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성곽 시설의 일부분만으로 평가되었다. 때문에 성문에 대한 온전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도시 확장 과정에서 성벽과 함께 철거되었다.

다음은 성벽 훼철 과정에서는 남겨졌지만 이후 도시 확장 과정에서 철거되었던 성문들이 있다. 경성 성문들과 평양의 정해문(靜海門)은 이러한 철거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사료들이며, 이를 통해 성문 철거의 목적과 잔존 성문의 의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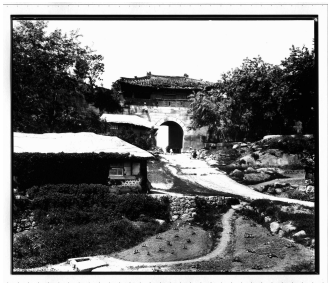
경성의 돈의문(敦義門)과 소의문(昭義門)은 한양성곽의 서문과 서소문으로 주변 성곽이 성벽처리위원회에 의해 1908년 훼철되었다[57]. 성벽 철거 당시에는 성문이 남겨졌으나 정동 일대의 시구개정사업이 시행되면서 도로 개수의 목적으로 1914년에 소의문(昭義門)이 1915년에 돈의문이 철거되었다[58]. 두 사례는 성문의 철거가 결국 도로 개수와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광희문은 한양성곽의 남동쪽에 위치한 성문으로 내수구인 청계천과 가까이 위치하여 수구문(水口門)이라고도 불렸다[59]. 광희문의 좌우 성벽은 1913년 전차 부설을 위해 철거되었지만 광희문은 남겨졌다. 동소문인 혜화문 역시 1912년 시구개정사업으로 주변 도로를 개수하기 위해 성곽이 훼철되었으나 성문 자

57) 城壁毁撤의 間數,「皇城新聞」, 1909. 7. 9
58) 김대한,『전차 개설에 의한 한양도성 문루 주변지역의 도시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5, 41쪽
59)「門內漢, 京城 八大門과 五大宮門의 由來」,『별건호』, 23, 1929. 9. 27

체는 잔존할 수 있었다. 두 성문은 도시에 남겨져 문의 역할을 이어나갔지만, 다른 잔존 성문들과는 달리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성문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자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물이 훼손되었고 이에 철거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28년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경성성벽구문중에는 동북간 문인 동소문(혜화문)과 동남간에 있는 부정문(不淨門)이라고하는 광희문은퇴락하야 위험하기짝이업스며 또한보관을 소홀히하야 걸인의숙박처가되어 위생상그대로둘서업다하야 이전부터 돈을들여 고적보존회의손으로 수리보관을하든지 그러치못하면차라리 텰회하야 불안이업시하자는 두의견이이서오든바 고적보존회로부터 경비가없어서 전긔두문을 유지할수업스니 철회하야도 무방하다는의견을 표시하얏슴으로 … 이밧게창의문마저 헐어버리자는 의견도잇섯스나 아즉 그럴필요가업다하야 …60)

기사에서는 두 성문이 관리 되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수리를 진행하거나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정의 부족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 의해 건축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은 성문들이 제대로 유지 보수되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사에서 뒤에 언급한 창의문의 경우도 성문의 건축적 가치가 높아 철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철거를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조차 없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두 성문의 석축부를 제외한 문루가 철거되었고, 혜화문은 1938년 도로 개수로 석축마저 철거되었다61).



[그림 3-1] 철거 이전 혜화문

[그림 3-2] 문루 철거 후 혜화문

60) 五百年의 歷史가진 東小,水口兩門撤毁, 「東亞日報」, 1928. 7. 12
61) 헐리는"東小門(동소문)", 「朝鮮日報」, 1938. 2 9

평양의 내성 서문이었던 정해문(靜海門)은 1910년대 성벽이 훼철된 후에도 1926년까지 문루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해문은 평양성의 잔존 성문 중 관심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위계가 높은 보통문과 대동문뿐만 아니라 북성의 전금문과 현무문과 같은 성문들은 일본에 의해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며 주목받았지만, 정해문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결국 1927년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성문이 철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육축을 제거하고 문루만 모란대 공원 내의 청류벽에 이건하면서 청류정(淸流亭)이라는 정자 건물로 사용되었다[62]. 앞선 혜화문의 사례와 반대로 문루만을 옮겨 관광 대상으로 활용한 점은 정해문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림 3-3] 철거 이전 정해문

[그림 3-4] 이건 된 정해문(청류정)

두 양상에서 나타난 성문의 철거목적은 도로 개수에 있었으며, 철거된 위치에는 교차로가 형성되었다. 이는 성문의 철거가 성벽 훼철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벽과 함께 철거된 성문들은 성곽 시설에 포함되어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한편, 성벽 훼철 후 남겨지더라도 성문 잔존의 필요목적을 가지지 못하면 일제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방치되었다. 일제는 그들이 활용할 상징적 가치가 없는 성문들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수관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낙후되고 퇴락한 성문들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도로 확장과 재정 부족의 이유로 철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강점기 동안 잔존할 수 있었던 성문들이 일본에 필요한 상징과 기능적 역할을 수용했음을 반증하며, 그 의미를 고찰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62) 靜海門樓移轉 淸流壁上으로,「每日申報」, 1927. 12. 28.

3.1.2 동선 기능 유지와 선택적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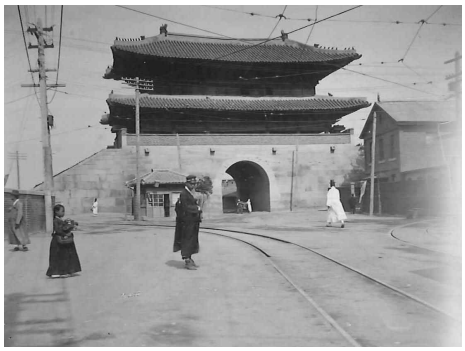
1) 입구의 상징과 역할 유지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전근대 성곽도시에서 성문은 유일한 통로이자 통치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성벽이 훼철되면서 성문 주변은 경계가 없이 사방이 뚫리며 열린 공간이 되었고, 성문은 유일한 출입구가 아니게 되었다. 굳이 성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도시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성문의 존재 의미에 의문을 만들었고, 실제로 많은 성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철거되었다.

하지만 잔존 성문들은 도시에 들어오기 위한 문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벽 훼철 후 성문의 전경과 홍예 밑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이 성문을 통과하여 지나다니는 모습이 확인된다. 성문의 실질적인 통로 기능이 약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문을 도시의 입구로 인식하고 있었고, 성문 앞 광장과 그늘진 홍예 밑은 소통과 휴식의 공간이 되었다.

이는 성문이 도시의 입구로서 상징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문을 통한 출입은 관습적인 동선으로 남겨졌다. 이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도시에서 사라진 내외부의 경계를 부여하였고, 성문은 도시 안팎을 구분하는 입구의 상징성을 유지하며 통로의 기능을 지속하였다. 한편, 근대화가 진행되는 도시에서 성문의 위치가 여전히 중요한 교통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성문은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도로들의 기점이 되어 이들이 교차하는 중심에 위치하였다. 때문에 성문을 통과하는 동선은 성벽이 없음에도 성문 앞을 지나는 최단 동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문 주위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성문을 지나는 동선에 사람들이 집중되었다.

입구 기능의 유지는 도시에서 철거되지 않은 주요 성문들에서 나타나며, 잔존 성문들이 본래의 문으로서 역할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도시의 입구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며 성문들은 필요목적을 확보하였고, 이들에 대한 일본의 보존 방향을 통해 식민전기 성문을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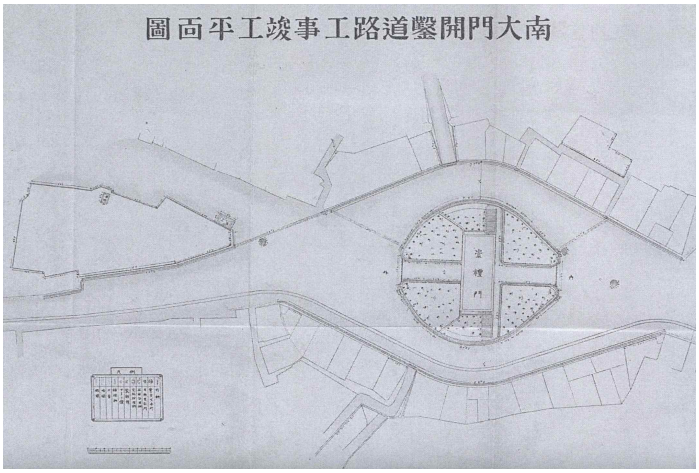
성문 전경	홍예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경성 숭례문	
	
경성 흥인지문	
평양 대동문	

[표 3-1] 통로로 사용되는 성문

2) 잔존 성문의 보존 방향

역할을 상실한 성문들이 철거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일제에 의해 선택되어 남겨진 성문들이 존재했으며,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된 성문은 보수 공사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한정되었고, 대부분 성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기보다 방치 형태의 유지가 이루어졌다.

경성 숭례문에 대한 공사는 성벽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1907년 9월부터 1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 숭례문에서 진행된 공사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수 공사보다 주변 상황을 정비하는 성격을 가졌다. 공사 과정에서 성벽이 없어진 문루 좌우의 육축을 경사로로 만들었고, 주변의 도로가 확장되며 중심에 성문이 놓이는 방식으로 배치되었다[63]. 숭례문에서 진행된 공사는 건조물 문화재 보존의 첫 시도였으며, 이후 성문 정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고찰과 진정성 있는 보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숭례문을 보존하기 위한 보수 공사라기보다, 주변 상황의 필요에 따른 성문의 건축적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5] 남대문개축도로공사준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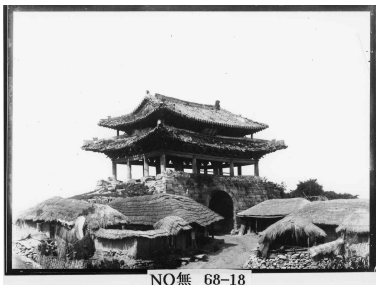
63) 강현의 연구에서는 1907년 숭례문 수리공사의 상황에 대해 밝히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의 건조물문화재 보존에 대한 최초의 시도였고, 이후 성곽 문화재 보존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고 말한다. 강현, 위의 논문, 2005, 113-114쪽

보통문에서 이루어진 공사는 국내 목조건축물 중 가장 먼저 본격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보통문은 평양성 중성의 서문으로 평양에서 육로로 통하는 문이었으며, 대동문과 함께 중층 문루로 축조되어 평양성에서 높은 위계를 가진 건축물이었다. 특히 보통문은 수차례 전쟁을 거치면서도 훼손되지 않아 조선 초기 문루 건축 양식이 보존되어 고적으로써 건축적 가치도 높았다. 그래서 보통문은 이전부터 '신문(神門)'이라 불리며 전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징은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 중요한 격전지가 되었던 평양을 전승지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승리를 표현할 적절한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통문은 일제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는 다른 성문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보통문 보수 공사는 1913년 7월 11일에 착수하여 12월 7일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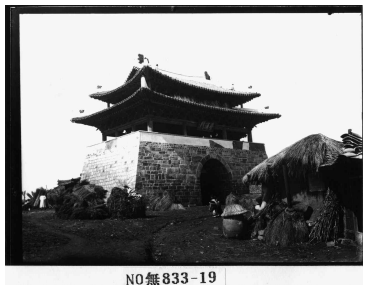
조선총독부는 대정2년 계축년도에 이를 수선하게 되어, 건축물 전부를 일단 해체하고 석단이 헉거워진 것은 이를 단단하고 치밀케 하여, 초석이 기운 것은 이를 바루고 종래 사용하던 용재 중 부후에 견딜 수 없는 것 외는 모조리 재래의 것을 사용하고, 신규보충 개소도 역시 구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며 …64)

위와 같은 공사 내용을 보면 보통문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기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부재 보충 시에도 이전의 모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에 대한 고찰은 문루에 집중되었을 뿐 육축은 일제에 의한 해석으로 정비되었다. 보통문의 육축은 철거된 좌우 성벽 자리에 경사면을 두고 계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숭례문의 육축과 같은 방식으로 문루와 달리 원형의 유지보다 편의에 의한 일본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육축은 성벽과 함께 조성되어 이에 따른 진입방식과 구성이 달라지지만, 보통문과 숭례문의 육축부 보수는 성벽의 흔적을 지웠으며 육축 원형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성벽 훼철

64) 조선총독부에서 파견된 키코 토모타카(木子智隆)는 「대정2년 평양보통문수리기요」에서 공사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재래 부재의 사용을 강조하고 신규 부재 보충에 주의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 강현, 위의 논문, 2005, 117쪽



[그림 3-6] 보수 공사 전 보통문



[그림 3-7] 보수 공사 후 보통문

과 함께 철거된 옹성부에 대한 논의는 공사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보통문의 사례는 일제가 성문을 통해 드러내고 싶던 상징성이 문루에 있었으며, 원형 유지의 대상도 문루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원은 성벽이 유지되며 성문이 잔존한 사례이다. 하지만 수원 성문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 공사는 1933년 「보존령」이 제정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65]. 때문에 수원 성문에 대한 보존 방향은 현상 유지의 차원에 머물며 방치의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문루 부분에 대한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옹성 부분에 대한 훼손은 수차례 진행되었다.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팔달문의 홍예가 1913년 사라졌고, 이후 1929년 3월에는 같은 목적으로 옹성의 좌우가 넓게 철거되었다. 이는 문루는 비록 방치의 형태더라도 원형 유지의 방향성을 가진 반면, 문의 영역인 육축은 도로와의 문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대상이었음이 파악된다.

이외에 경성 숙정문, 창의문, 평양의 칠성문, 전금문, 현무문과 같은 북문 영역의 성문들은 완전한 방치의 모습을 보인다. 도로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훼철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같은 이유로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성문들은 필요목적이 생기지 않으면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강점기 동안 자연적인 훼손이 이루어졌다.

식민 전기 성문의 보존 방향은 보통문을 제외하고 현상 유지에 그치는 방치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루에 대한 유지는 이루어지더라도 육축은 성문 정비의 편의에 맞추거나 도로 상황에 따라 조정과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을

65) 수원 장안문의 수리공사는 1935년 3월 12일에 착수하여 1937년 3월 준공했다.

확인하였다. 이는 일제가 판단한 성문의 건축적 가치가 문루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루 중심의 소극적 보존 방향은 1930년대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성벽 훼철 이후 식민전기 성문의 양상은 크게 철거와 잔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문의 철거는 성벽 훼철 과정에 포함되거나 그 이후 철거되는 사례로 나타났다. 두 양상은 시기의 차이를 보이지만 성문의 건축적 가치보다 도로 개수의 목적이 더욱 클 경우, 남겨질 당위성을 얻지 못하며 철거되는 상황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잔존한 성문들은 입구로서 역할이 유지되었고, 비록 방치 형태의 소극적 보존일지라도 성문의 형태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잔존한 성문들은 평양의 보통문과 같이 있는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경성 숭례문과 흥인지문, 평양 대동문 등 주요 도시의 성문들에서는 이전과 다른 양상의 활용이 이루어진다. 성문에서 나타난 새로운 활용 방식은 식민전기에 전환된 성문의 위상와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후술할 내용에서는 성문의 활용 양상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 문루 공간의 행정과 대외시설 전용

3.2.1 전시와 강연공간의 활용

1) 전시시설로의 활용

조선시대부터 성문은 소통의 장소였다. 중심도로의 기점에 위치하여 교통망의 교차점이 되는 장소였고, 성문 앞 대로는 시전과 행정시설들이 자리 잡아 유동 인구의 집중도가 높았다. 조정에서도 주요한 법령이나 정책을 고시할 때 문루 앞 공간을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였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성벽이 훼철되고 도시적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도 잔존한 성문의 위치는 여전히 주요 교차로의 중심에 있었으며, 사람들의 모이게 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위치적 이점을 바탕으로 성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방식 중 하나가 전시시설로의 활용이었다.

전시시설로 활용되는 가장 이른 사례는 경성 숭례문과 흥인지문에서 이루어졌다. 1907년 9월 1일 일제는 자국 산업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경성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통감부가 기획하고 농상공부가 추진한 경성박람회는 경성에서 열린 최초의 박람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66]. 농상공부는 경성박람회를 추진하며 숭례문과 흥인지문에 상품진열소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상품진열소는 일본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진열하는 공간으로 박람회와 더불어 활성화되었던 시설이다[67]. 1907년 10월 11일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농상공부에서 이를 설치하기 위해 2,680환 16전을 수리비로 지출하였다고 한다[68]. 이렇게 상품진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공립신보」에서는 두 문루를 박람회 진열소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 언급하며 동조하였

66) 한규무, 「1907년 경성박람회의 개최와 성격」, 『역사학연구』, 38, 2010, 293-322쪽
67)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권업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물산진열소 또는 상품진열소를 설치했다.
68) 문루수리비, 「大韓每日申報」, 1907. 10. 11.

다[69]. 하지만 두 성문의 문루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성박람회가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박람회에서는 보다 소극적인 방식의 활용이 이루어졌다.

경성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한시적인 박람회를 위한 전시시설로 활용되었다면 의주 남문은 상설 전시시설인 물산진열관이 설치되었다. 1910년 6월 17일 「황성신문」 기사에서 의주 남문의 물산진열관을 설치하기 위해 성문을 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70]. 하지만 1913년 1월 18일 「매일신보」에 실린 의주 남문 사진에서는 아직 물산진열관이 설치되지 않고 이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1913년 이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71]. 의주 남문에 설치된 물산진열관은 일제가 각도 지방에 설치한 지방 상설 전시시설이었다. 다른 도시에 설치된 물산진열관의 경우 대부분 근대 양식의 신식 건축물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의주에서는 문루를 그대로 물산진열관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義州南門에物産陳列 義州南門
은수回에修理를加ᄒᆞ야物産陳列場
을作ᄒᆞ기로設備中이라더라

[그림 3-8]
의주남문에
물산진열

[그림 3-9]
1913년 「매일신보」에
수록된 의주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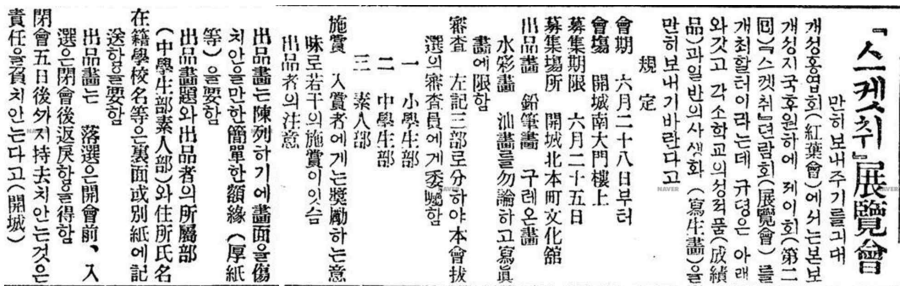
69) 문루를 점령, 「共立申報」, 1907. 09. 13.
70) 義州南門에 物産陳列, 「皇城新聞」, 1910. 6. 17.
71) 義州南門, 「每日申報」, 1913. 1. 18.

평양 대동문은 1920년대 이후부터 전시 목적의 활용으로 전환되었다. 1923년 5월 22일 평양 전차 개통을 기념하여 개최된 전차기념 전람회에서 대동문을 진열관으로 사용한 것이 시작이었다[72]. 22일부터 10일간 개최된 전람회는 제일관을 평양공회당, 제이관은 대동문, 재삼관은 종로보통학교로 하여 경성과 일본에서 출품한 농상공광의 물품들을 진열하였다. 본래 계획은 제이관을 물산진열소로 정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휴게소와 매점의 장소가 없어 대동문으로 정하였다[73]. 이는 대동문뿐만 아니라 연광정을 포함한 대동문 영역이 전시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협소했던 물산진열소는 1923년 11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을 본뜬 형태로 신축되었으나 이후로도 대동문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1925년 3월 21에는 평양부 도서관의 낙랑고기물진열관을 신축하기 위해 잠시 대동문 누상에 낙랑유물들을 진열하였다[74]. 이후 평양 서선일보(西鮮日報)의 주최로 1927년 4월 24일부터 22일 동안 개최된 조선전기전람회에서도 진열관으로 사용되었다[75].

개성 남대문도 대동문과 비슷한 시기에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1923년과 1924년 개성홍엽회(開城紅葉會)[76]에서 주최한 두 번의 스케치전람회에서 문루에 입선작들을 전시하였다. 제1회 전람회에서는 192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입선된 46점을 개성 남대문에 전시하여 공개했고, 제2회에서는 1924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입선된 작품을을 전시하였다[77]. 전람회의 주최측인 개성홍엽회는 개성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미술 단체로 문루를 사용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활용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

72) 평양전차개통기념전람회, 「東亞日報」, 1923. 5. 22.
73) 전차기념전람회, 대동강 관화 대회까지 열고 제2장소는 대동문으로 해, 전차 개통을 기념, 「每日申報」, 1923. 2. 6.
74) 平壤の陳列館, 當分大同門樓上を使用, 「京城日報」, 1925.03.21
75) 조선전기전람회, 「東亞日報」, 1927. 4. 23.
76) 개성홍엽회는 1923년 4월에 개성 청년들이 발기한 지역미술단체로써 서양화뿐만 아니라 사진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계몽적 성격의 청년미술단체의 의미를 가진다.
77) 스케취展覽會, 「朝鮮日報」, 1924.07.02


『스켓취』展覽會

만히 보내주기를 긔대

개성홍엽회(紅葉會)에서는본보 개성지국후원하에 제이회(第二回)『스켓취』전람회(展覽會)를 개최할터이라는데 규뎡은 아래와갓고 각소학교의성적품(成績品)과일반의사생화(寫生畵)을 만히보내기바란다고

規定

會期 六月二十八日부터

會場 開城南大門樓上

募集期限 六月二十五日

募集場所 開城北本町文化館

出品畵 鉛筆畵 구레온畵 水彩畵 油畵를 勿論하고寫眞畵에限함

審査 左記三部로分하야本會拔選의審査員에게委囑함

一 小學生部

二 中學生部

三 素人部

施賞 入賞者에게는奬勵하는意味로若干의施賞이잇슴

出品者의注意

出品畵는陳列하기에畵面을傷치안을만한簡單한額緣(厚紙等)을要함

出品畵題와出品者의所屬部(中學生部素人部)와住所氏名在籍學校名等은裏面或別紙에記送하을要함

出品畵는 落選은開會前、入選은閉會後返戾하을得함

閉會五日後外지持去치안는것은責任을負치안는다고(開城)

[그림 3-10] 개성 남대문에서 개최된 스케치 전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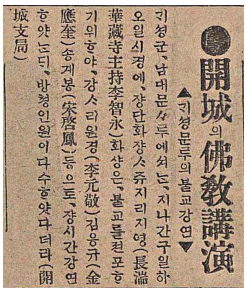
2) 강연공간의 활용

위치적 이점을 바탕으로 사용된 전시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강연공간의 활용도 이루어졌다. 성문 앞의 광장과 문루를 통해 강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강연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는 개성 남대문과 경성 흥인지문의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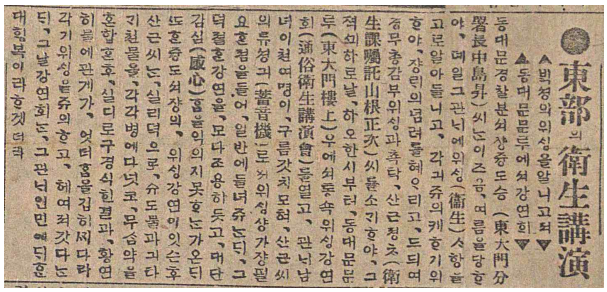
개성 남대문에서는 1912년 6월 9일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불교 강연이 개최되었다[78]. 개성 남대문의 누상에서 리원경, 김응규, 송계봉 등의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이 진행되었고 방청 인원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흥인지문에서는 1914년 6월 3일 성문 누상에서 사람들에게 위생을 알리는 통속위생강연회가 개최되었다[79]. 강연은 경무총감부위생과 촉탁 야마네 타다시(山根正)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강연을 듣기 위해 남녀 2천여 명이 모였다는 것으로 보아 문루 누상뿐만 아니라 문루 앞 광장까지 활용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강연공간의 활용은 식민전기 문루가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성문은 문루와 광장이라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는 직접적인 사회적 소통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활용은 조선시대 성문의 활용과도 이어지며, 용도의 전환이 되었을 뿐 활용되는 성문의 요소는 같음을 파악할 수 있다.

78) 開城의 佛教講演, 「每日申報」, 1912. 6. 12.
79) 東部의 위생강연, 백성의 위생을 알리고자, 동대문 문루에서 강연회, 「每日申報」, 1914. 6. 3.



[그림 3-11]
개성 남대문에서의
불교강연



[그림 3-12]
경성 흥인지문에서 진행된
위생강연

3.2.2 관립시설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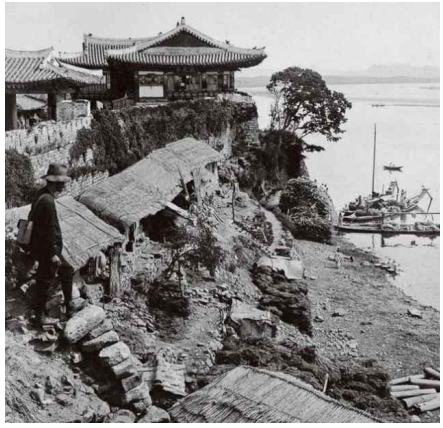
1) 평양 대동문

일본은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근대 제도들을 확립하며 전국적인 근대화 계획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필요한 관립시설들을 모두 신축하여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이에 일본은 기존에 남아 있던 건축물들을 활용하여 근대시설의 기능 수용하는 방식으로 통치 기반을 확보하였다. 식민 초기 이루어졌던 고적 조사의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선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근대 건축물들은 훼손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축물의 전용은 객사, 감영, 관아, 행궁 등 읍성의 주요 통치시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사법, 행형, 학교, 병원 등 근대 관립시설로 사용되어 갔다[80].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일부 성문의 문루에서도 관립시설의 기능을 수용하려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의 대동문은 전시시설로 활용되기 이전에 관립시설로 활용되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명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명시된 문서는 없으나 대동문과 주변 상황의 변화를 통해 그 활용을 추정할 수 있

80) 주상훈, 『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사법, 행형, 교육시설 건축도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94-117쪽

다. 대동문 영역의 변화는 우측에 있는 연광정(練光亭)에서 시작되었다. 연광정은 평양성 동쪽의 대동강변에 위치한 누정 건축이다. 성곽 위에서 대동강을 바라보는 뛰어난 조망을 통해 평양팔경 중 하나로 손꼽혔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시조들이 쓰여졌다[81]. 이러한 연광정은 1904년에서 1905년 러일전쟁 가운데 전보국사무실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1905년 연광정 사진을 보면 이전과 다르게 외벽과 창을 설치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전보국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반외부 공간이었던 누정의 사방을 막고 실내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내공간으로의 변형은 1905년과 1908년 사이 대동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대동문도 문루의 내부 공간을 실내화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형했으며, 이러한 연광정과 대동문 활용의 연관성은 사료들에서 나타난다. 연광정이 전보국사무실로 사용되며 대동문과 연광정 영역은 전보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1919년 평양부전도와 평양동부지도에서 대동문과 연광정 사이에 전화교환소가 설치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3-13] 1905년 연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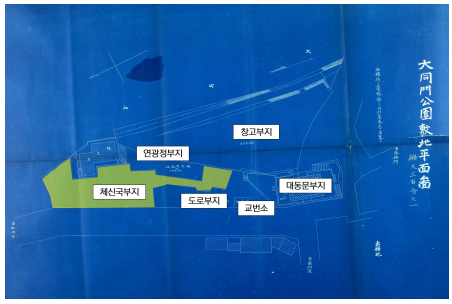
[그림 3-14] 1905년 이전 대동문

[그림 3-15] 1908년 대동문

81) 『練光亭示而順立之』, 최경창

이러한 대동문과 연광정의 활용은 1920년대 대동문 영역이 공원으로 조성되며 점차 사라졌다. 1920년 9월 6일「동아일보」기사[82]에서 전화교환소를 평양본정우편국으로 이전한다고 전하였다. 대동문 공원에 대해 언급한 1923년 1월 6일「매일신보」기사[83]에서는 대동문 영역의 소유가 체신국에 있어 평양부와의 협의가 필요했다고 언급한다. 체신국은 1912년 통신국에서 개칭되어 우편과 통신의 업무를 담당한 부서이다[84]. 이러한 대동문 영역에서 체신국 소유의 토지는 1924년 대동문 공원 조성 관련 총독부 문서에서 확인된다[85]. 이러한 사료들은 대동문 영역에 있어 체신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체신국의 관장 영역이 우편, 전화부터 항로, 선박 관련 사업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보국사무실로 사용된 연광정과 연관성을 가지고 평양 해운의 입구 역할을 담당한 대동문이 체신국 관련 관립시설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립시설로의 활용은 공원 조성과 함께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3-16] 1919년 평양부전도, 평양동부



[그림 3-17] 대동문공원부지 평면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 도시는 아니나 해주의 경우 남문이 헌병분견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분견소는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제 아래에서 전국 각지에 설치된 행형시설이었다. 이러한 해주 남문은 1925년 4월 1일 도로공사로 인

82) 平壤電話交換所,「東亞日報」, 1920. 9. 6
83) 大同門公園 설치하기로 작정,「每日申報」, 1923. 1. 26.
84) 체신국은 1905년 통감부의 통신관리국에서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통신국으로 변경되었고, 1912년 조선총독부 체신 관서 관제 시행에 따라 체신국으로 개칭되었다. 우편, 전신, 전화, 선박, 항로 등의 사무 및 사업의 관리 감독을 담당했다.
85)「제18회 고적조사위원회, 대동문 공원 부지 평면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F066-006-015-001.

하여 철거되었고[86], 현재는 순명문 터만 남겨져 있다. 하지만 해주의 사례는 조선시대 성곽에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던 성곽의 문루가 감시 주체가 바뀌어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줌에 의미가 있다.

[그림 3-18] 분견소로 활용되는 해주 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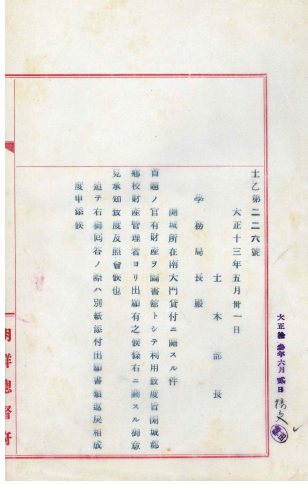
개성 남대문에서는 성문의 문루는 관립시설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사용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1923년 개성부에서는 남대문 누상에 대한 현상변경을 신청하였다[87]. 현상변경의 내용을 관유재산이었던 개성 남대문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성부의 주체로 진행되던 개성도서관의 설치는 6,500원의 예산으로 1924년 여름까지 창립될 예정이었으나[88], 내부사정에 의하여 남대문 누상이 아닌 전헌병대관사 건물로 변경되어 1924년 10월 8일 개관되었다[89]. 당시 도서관 설치에 대한 조선인의 입장은 근대잡지인 「개벽[90]」에서 논설한 내용에서 확인된다[91].

開城鄕校財産을 가지고 南大門樓上에 圖書館을 設置한다고 한지가 벌서 오래다. 그런데 뒷등에 져께 말성이 잇는 모양이다. 우리의 보는 바로는 市街의 가장 複雜한 南大門樓上에 圖書館을 設置한다 함은 場所부터 適宜치 안은 것을 指摘하야 이에 反意를 가젓슴을 말한다. 또 圖書館은 元來 一般의게 新思潮와 新文化를 부어줄만한 圖書를 具備하게 設置하여야 할 것은 多言이 不要할 것이다. 萬若 所聞으로는 每日申報나 雜誌로는 日鮮融和論을 실은 것과 一般圖書라도 專制와 壓迫을 터삼은 現代日本政治를 讚揚한 政治書가 안이면 資本主義를 터삼은 資本主義的 經濟組織을 讚하는 經濟書 等! 이와 맛찬가지로 官의 조흔대로 卽 御用學問을 紹介하는 御用圖書를 備置한다 하면 그 立意부터 反對한다. 어데까지든지 公에 立하고 正에 觀하며 大多數를 念頭에 늘 두어 가지고,

86) 順命門을 撤毁,「東亞日報」, 1925. 4. 1
87)「대정11년부터 13년까지 고적보존, 개성 남대문 대부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관리번호 A061-041-001-001
88) 開城圖書舘經紀,「朝鮮日報」, 1924. 2. 3
89) 開城郡圖書館,「東亞日報」, 1924. 10. 6.
90)「개벽」은 1920년 천도교청년회에서 신문화운동을 바탕으로 조선인 계몽을 위하여 창간한 잡지이다. 이는 일제의 정책에 항거하여 정간, 발행금지, 벌금 등 처벌을 받으면서도 민족의식 고취에 역점을 둔 대표적인 근대 잡지였다. 김중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91) 松都閑人, 開城漫筆,「개벽」 제51호, 1924. 9. 1

저들에게 有益하고 저들의게서 生命이 될만한 그 무엇을 부어 줄 참된 機關노릇을 하여야만 될 것이다. 진실로 이마마한 誠意와 抱負와 끈임업는 努力이 잇슬가 疑問이다.

논설에서는 시가에서 가장 복잡한 남대문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구비될 서적에 관의 의도가 들어갈 것을 염려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성문의 문루를 관립시설로 활용하려는 당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土乙第二二六號
大正十三年五月卅一日
土木部長
學務局長殿
開城所在南大門貸付ニ關スル件
首題ノ貸有財産ニ關シ審査トシテ利用致度旨開城稟
地校財産管理者ヨリ出願有之候條右ニ關スル御意
見承知致度及照會致也
追テ右御問合ノ際ハ別紙添付出願書類返戻相成
度申添候

[그림 3-19]
개성소재 남대문 대부의 건

3.2.3 부속시설 및 장식적 활용

성문이 도시에서 가지는 상징성을 이용하여 문루에 부속시설을 임시로 설치하거나 장식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수원은 부산에서 수원으로 거쳐 경성으로 향하는 경부선이 개통되며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성장한 도시였다. 또한 수원 성곽 전체가 고적으로 인식되어 성벽을 비롯한 성문들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는 수원이 타 도시들과 다른 풍광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수원의 관광 진흥을 위해 1915년 수원협찬회가 조직되었디. 수원협찬회는 팔달문 누상에 전등과 색기를 장식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기에 삿보로맥주회사가 협찬회와 협력하여 팔달문 누상에 접대소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92]. 전주에서는 1917년 전등창립총회가 개최되자 풍남문 누상에 매점을 설치하여[93] 이를 부속시설로 활용하였다. 경성 숭례문에서는 1929년 조선박람회에서 성문을 전등으로 장식하여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성문의 문루 공간을 직접 활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성문의 입구성을 통해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루의 접근성과 상징성을 활용하여 관광이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20] 1929년 조선박람회 당시 숭례문

92) 수원협찬회는 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1915년 4월 경 수원의 관광 진흥을 위해 내선관민이 합동하여 조직힌 단체이다. 조성운, 「1910-20년대 수원지역 근대관광의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8, 56-58쪽

93) 전주 전등창립총회, 경철운수 성적, 행려병인 수용소, 남문누상 매점 개시, 인사소식, 「每日申報」, 1917. 6. 8.

3.3 문루 형태의 유지와 변형

3.3.1 문루 공간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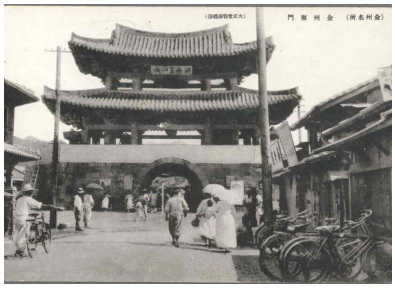
전용된 성문들의 양상은 크게 기존의 문루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내부 공간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공간의 유지하며 활용하는 성문들은 경성 숭례문, 흥인지문, 수원 팔달문, 전주 풍남문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위 사례들은 문루 공간에 변형을 가하지 않으며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활용한 용도를 살펴보면 임시적인 활용이거나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성문들은 공간적 활용의 목적보다 상징적 의미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용은 전시공간, 강연, 장식적인 용도를 보이는데, 이는 문루 공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여 사용하기보다 성문이 가진 전근대적 상징과 도시 대표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이로 인해 문루 공간을 유지하는 성문들은 적극적인 활용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성문이 사용되지 않고 도시의 상징물로만 남겨진 시간이 더 많았다. 특히 주요 도시의 성문이 아닌 대부분의 성문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남겨져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도시	성문	년도	용도
경성(京城)	숭례문(崇禮門)	1907	상품진열소
		1929	전등장식
	흥인지문(興仁之門)	1907	상품진열소
		1914	위생강연
수원(水原)	팔달문(八達門)	1915	전등장식, 삿포로 맥주 접대소
전주(全州)	풍남문(豊南門)	1917	매점

[표 3-2] 문루 공간을 유지하는 성문의 활용 용도

전용 이전	전용 이후
경성 숭례문	
경성 흥인지문	
수원 팔달문	
	
전주 풍남문	

[표 3-3] 문루 공간을 유지한 성문의 활용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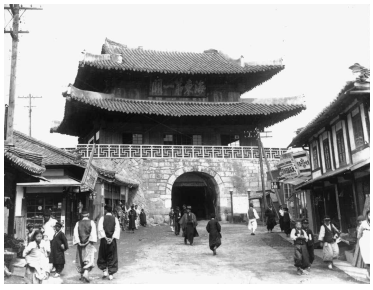
3.3.2 내부 공간의 변형

문루 공간을 내부화하여 사용하는 성문들은 지속적인 용도의 활용을 보인다. 하지만 의주 남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문들은 이러한 활용을 이어가지 못하고 앞선 사례와 같이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대동문의 체신국 관련 시설, 의주의 물산진열관, 해주의 분견소는 지속적인 활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성문이 가지는 지리적 이점과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식민 초기 지방도시의 부족한 관립 시설의 기능을 수용하며 사용되었다. 특히 의주 남문과 평양 대동문의 경우 고적으로 인식되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던 건축물들이었으나 적극적인 공간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는 도시의 공간적 수요가 상징성과 건축적 가치의 보존보다 앞서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활용은 1920년대를 전후로 전환되었다. 상주하는 용도의 활용보다 전시와 같은 일시적인 활용 양상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는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루 공간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굳이 성문을 사용할 필요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후기의 성문 양상과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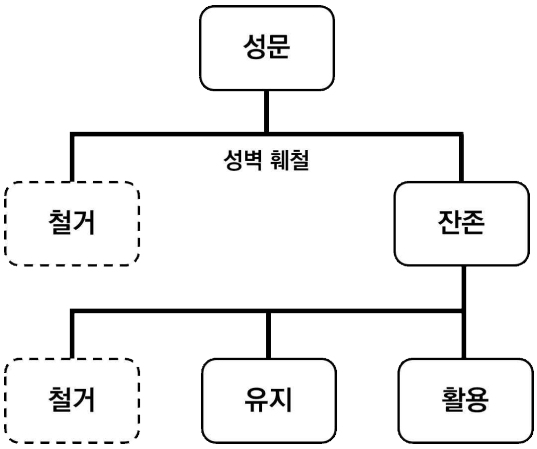
도시	성문	년도	용도
평양(平壤)	대동문(大同門)	1907	체신국 관련 관립시설
		1923	전차기념전람회 진열관
		1925	낙랑고기물 진열관
		1927	전기박람회 진열관
개성(開城)	개성 남대문	1912	불교강연
		1923	제1회 스케치전람회 전시장
		1924	제2회 스케치전람회 전시장
		1924	도서관 전용 시도
의주(義州)	의주 남문	1913	물산진열관
해주(海州)*	해주 남문	1910년대	분견소

[표 3-4] 문루 공간을 내부화하는 성문의 활용 용도

전용 이전	전용 이후
평양 대동문	
개성 남대문	
	
의주 남문	
해주 남문	

[표 3-5] 문루 공간을 내부화한 성문의 활용 전후

3.4 소결



[그림 3-21] 식민전기 성문 양상

성문 건축은 성벽 훼철과 함께 철거와 잔존의 양상으로 나누어졌다. 철거의 양상은 모든 도시의 성문 건축이 겪어야 했던 거대한 흐름이었으며, 성곽 훼철 과정에서 잔존한 성문일지라도 필요목적을 상실하거나 일본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철거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철거의 상황은 잔존 성문들이 가졌던 역할과 의미를 확인시켜주었다.

잔존 성문들은 현상 유지에 그치는 방치 형태의 소극적 보존 방식으로 도시에 남겨질 수 있었다. 보통문과 같은 일부 성문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보수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방치되어 낙후된 성문들이 끝내 철거되곤 하였다. 진행된 보수 공사도 문루에서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육축부는 도로와의 상황에 따라 옹성을 철거하거나 석축을 변형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성문의 건축적 가치가 문루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성문 건축의 보존과 부딪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잔존 성문들의 경우 이전보다 그 역할 축소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통로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의 입구라는 상징성을 유지

하고 있었다. 이렇듯 도로의 문제는 성문 잔존에 항상 내재된 문제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후술할 4장에서 식민후기의 상황과 함께 논의한다.

한편, 잔존 성문들은 전근대 성곽에서 가졌던 방어와 통제의 역할과는 다르게 새로운 용도와 의미로 활용되었다. 성문의 접근성,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며 문루 공간 내부를 일시적인 전시공간이나 강연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문루 공간에 관립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활용 이외에도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도시의 관광 진흥을 위해 문루를 장식하고 매점을 설치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활용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시나 간접적인 사용이 주로 이루어진 경성 숭례문, 흥인지문, 수원 팔달문, 전주 풍남문의 경우 문루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하였으나, 관립시설로 사용되거나 계획되었던 평양 대동문, 개성 남대문, 의주 남문, 해주 남문의 경우 문루 공간을 실내화하며 변형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도시마다 다양한 방향의 활용이 나타나고, 건축물의 변형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식민전기의 일본이 조선의 건축물에 대해 온전한 타자화까지 진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시시설과 장식적 활용 사례에서는 도시의 대표성과 전근대의 상징성을 통해 조선의 건축물로 강조하려는 타자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모든 근대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었던 일본이 기존 건축물들을 전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성문 건축에서도 관립시설과 강연공간 등 성문이 가진 조선의 이미지를 강조하기보다 건축물 자체의 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며 완전한 분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정리하면 식민전기의 성문 건축의 변화는 일본에 의한 타자화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시대 상황이 성문 건축의 다양한 전용과 변형을 가능케 하였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초기적인 타자화 전략은 식민후기에 이르러 보완되면서 점차 확립되었고, 성문 건축의 역할은 전기와 다른 양상의 타자화와 함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Ⅳ. 식민후기 잔존 성문의 고립과 타자화

4.1 주변 도로의 개설과 성문의 분절
4.2 공적 활용의 감소와 상징성 강화
4.3 문화재 제도의 확립과 해방 이후 영향
4.4 소결

4.1 주변 도로의 개설과 성문의 분절

식민 초기부터 잔존 성문의 문루 공간을 활용하던 양상은 1920년대까지 이어졌다. 잔존한 모든 성문에서 전용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성문들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되었고, 선택된 성문들은 주요 도시의 대표적인 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문루 공간의 활용은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며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1930년대부터 성문을 사용하는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잔존 성문들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식민 후기 성문의 변화는 1933년 「보존령」의 제정과 함께 고착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도로 계획과 성문의 배치 관계, 관립시설의 확보와 관광 정책 등이 있다.

일제는 식민 통치를 시작한 이후 조선의 전근대 도시들을 그들의 제국주의 지배 정책에 적합하도록 개조시켜나갔다. 이를 위해 세워진 도시계획은 도시들을 근대화시켜나갔고 그 안에 속해있던 기존 건축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시계획의 우선적인 목표는 기존 도로를 개수하여 폭을 넓히고 새로운 도로를 부설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로망의 설치와 함께 근대 통치 시설과 공공시설들이 자리 잡았다[94]. 1912년 총독부 고시로 시작된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시작[95]으로 전국 도시들에 대한 정비가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로에 대한 개수가 이루어졌다[96]. 각 도시마다 성문 주변의 도로가 개수된 시기는 차이를 보이나 이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도시에서 성문의 성격을 정의해 나갔다. 도로 위에서 성문이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 성문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 조직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도로와 성문의 연결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94) 국가기록원, 「도시계획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제2부, 『한국사연구휘보』, 152, 2011, 157쪽
95) 「朝鮮總督府官報」, 제81호 1912.11.6
96) 시구개정사업이 실시된 지방 도시는 대구, 부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의 5개 부와 전주, 진해, 진주, 겸이포, 함흥의 6개면이었다. 시구개정사업을 시작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들에서도 도로에 대한 정비는 이루어졌으며 성문 주변 그 이후 정비되어갔을 것이라 추측된다.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112-113쪽.

4.1.1 교통섬 조성과 성문의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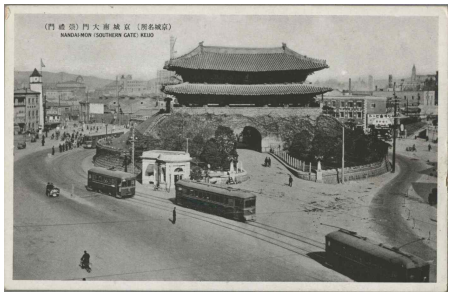
성벽이 철거된 성문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성문을 도로 중심에 위치시켜 교통섬을 만들고 교차로를 형성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요 도로 기점에 놓여있던 성문을 옮기지 않고도 도로망이 구축할 수 있었고, 기존의 도로와 성벽이 훼철되고 생긴 신작로가 성문을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성문은 이를 중심으로 순환 교차로를 형성하며 교통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도로 체계를 확장하면서 성문을 철거하지 않기 위한 대안이었으며, 교통섬이 된 성문은 도시의 입구로서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현재 남겨진 많은 성문도 교통섬 방식의 배치를 따라간다. 하지만 도로가 확장되며 도시 조직과 교통섬이 된 성문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성문의 기능은 한정되어 갔다.

1) 경성 숭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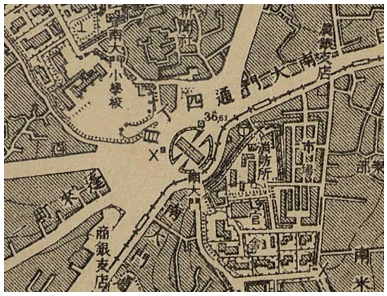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배치는 경성 숭례문, 개성 남대문, 전주 풍남문에서 확인된다. 경성 숭례문은 근대화 과정에서 개수된 태평통와 같은 신작로와 기존의 주요 도로였던 남대문통이 교차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변 도로의 개수는 1908년 10월 숭례문 좌우 폭 8칸의 도로 공사를 시작으로[97] 1912년 11월 6일 경성시구개정사업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고시된 내용은 29개의 가로에 대한 개수를 결정하였고, 숭례문 주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사업으로 1912년 태평통을 27-30m로 확장하고 남대문통을 27m로 확장하였으며[98] 숭례문 주변 광장을 정비하여 교통섬으로서 숭례문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숭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차로는 위로는 확장된 태평통을 통해 조선총독부로 연결되고, 밑으로는 경성역과 연결되어 경성 교통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놓인 숭례문은 도시의 입구성과 상징성은 강화되었으나, 건

97) 김대한, 『전차 개설에 의한 한양도성 문루 주변 지역의 도시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5, 29쪽
98) 최자형, 『숭례문과 주변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7, 20쪽

축물로써 사용될 활용적 가치는 떨어지게 되었다.



[그림 4-1] 숭례문과 주변 도로(192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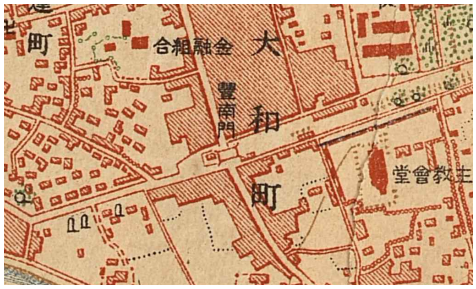


[그림 4-2] 1919년 숭례문 상황

2) 전주 풍남문

전주는 1907년 우리나라 전주, 군산 간 도로가 개통되며 식민지배를 위한 근대화가 이루어진 도시이다. 1912년 시구개정사업에 포함되어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조선시대의 도로망이 비교적 남겨진 특징을 가진다[99]. 성문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남북 도로가 중심이 되어 성벽이 훼철되고 생긴 동서 도로와 풍남문에서 교차하였다. 숭례문과 같이 성문 주변 도로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성문을 중심의 순환교차로를 형성하며 도시의 입구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4-3] 전주 풍남문(1920년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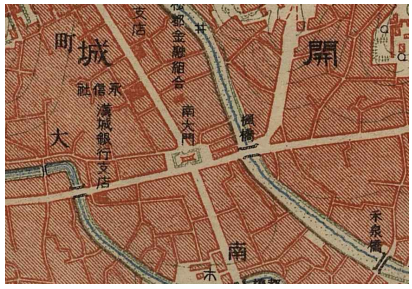
[그림 4-4] 1919년 풍남문 상황

99) 박선희,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전주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9(2), 2007, 63쪽

3) 개성 남대문

전주와 같이 남문만 남겨진 개성은 동일한 성문 배치를 보인다. 기존 도로와 성벽 가로가 十자형을 이루며 형성되고 성문은 가운데에서 교통섬의 역할을 한다. 개성의 경우도 가로망이 조선 시대의 가로망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개성 남대문은 여전히 도시의 주요 교통망 가운데 위치하였다. 달라진 점은 성벽이 훼철되며 성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도시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구성보다 상징적인 입구성이 강조되었다.

[그림 4-5] 개성남대문(1920년대 추정)



[그림 4-6] 1919년 개성남대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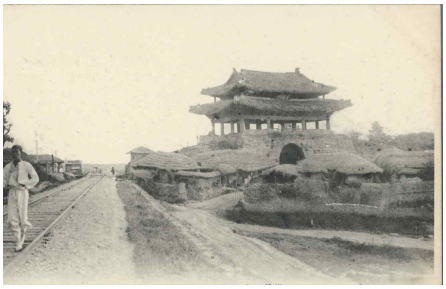
이러한 교통섬 방식은 도로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로서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때문에 많은 잔존 성문에서 사용된 방식이었지만, 도시 개발이 진행될수록 도시 조직과의 간격을 만들었으며 성문의 실질적인 활용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 결과 성문은 도로 한가운데 놓인 섬이 되었으며 고립된 건축물이 되어갔다.

4.1.2 도로 우회 방식과 성문 영역의 분리

다음은 도로와 성문이 연결되지 않고, 도로를 우회시켜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축하는 방식이 있다. 평양의 보통문과 대동문, 경성의 흥인지문이 이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경우 성문이 도시의 중심도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개별 건축물로서 성문의 공간을 확보하는 특징을 보인다.

1) 평양 보통문

보통문은 평양 중성의 서문으로 평양에서 육지로 나가는 주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1906년 평양-신의주간 철도가 평양에 개통되면서 기존 동선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평양에 개설된 철길은 보통문과 시가지 사이를 가로질렀고, 이는 성문과 도시 조직 사이의 분절을 가져왔다. 이러한 배치는 기차를 타고 평양에 들어올 때 보통문이 보이도록 하여, 평양의 입구를 대표하는 오브제로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렇게 단절된 보통문은 평양의 개발과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문으로서 역할보다 상징성만 강조된 단일 건축물로서 남겨졌다.



[그림 4-7] 철도 개설 이후 보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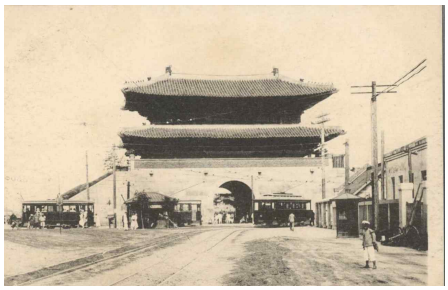
[그림 4-8] 1920년대 보통문 상황

2) 경성 흥인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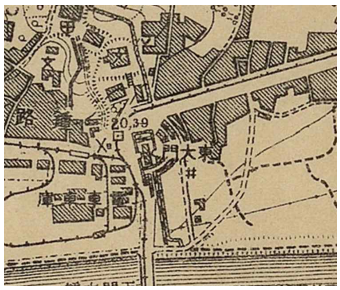
경성 흥인지문에서는 성벽 훼철이 진행될 시기 성문 주변의 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는 1910년에 11월 시작된 공사는 흥인지문 부근의 교통이 불편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내무부 토목과에서 좌우 성벽을 훼철하고 신도로를 개설하며 시작되었다[100]. 성벽이 철거된 자리에 8칸의 신작로를 개설하였고, 기존 도로를 북측으로 우회하여 성 외부로 통하는 길을 조성하였다[101]. 흥인지문을 통과하던 전차는 도로 개수 직후에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13년부터 5년간 동대문에서 숭인동까지 도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우회도로 측으로 이동하였다[102]. 도로의 우회는 흥인지문 영역이 도로 체계에서

100) 동대문로 확장, 「每日申報」, 19101. 11. 29
101) 東大門路擴張, 「慶南日報」, 1911. 5. 27

떨어져 독자적인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성문의 직접적인 통로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도시에서 성문이 고립화되는 양상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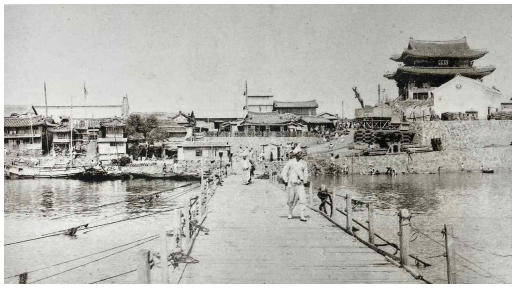
[그림 4-9]
도로 우회 이후 흥인지문



[그림 4-10]
1919년 흥인지문 상황

3) 평양 대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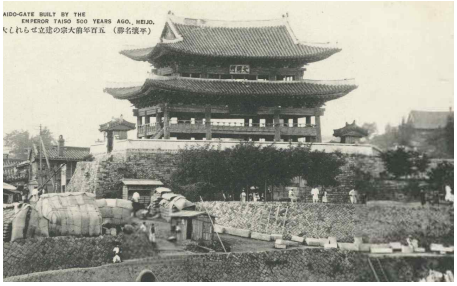
평양의 대동문은 기존에 연결되던 도로가 근대화 과정에서 위상이 떨어지며 성문의 역할에 변화가 생겼고, 개별적인 영역으로까지 분리된 사례이다. 조선시대 대동문은 평양에 들어오기 위한 주 출입구로서 성곽의 정문 역할을 담당한 성문이었다. 동문이었던 대동문의 위상이 평양성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대동강이 평양성의 3면을 두르는 지리적 특징 때문이었다. 평양성에 진입하는 주 동선은 대동강을 통해 수로로 진입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대동강변에 위치한 대동문은 수로를 통한 인적, 물적 이동이 집중되었고, 대동문에서 이어지는 대동문로는 객사와 연결되어 행정과 상업이 밀집한 중심대로가 되었다. 대동문과 수로의 관계는 대동문이 관립시설로 사용될 때까지도 이어졌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선교가 설치되고, 상가와 창고들이 즐비한 것을 통해 식



[그림 4-11] 1910년대 대동문 앞 전경

102)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2014, 34-35쪽

민 초기 수로를 통한 상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동문 영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급변하였다. 1915년「每日申報」기사에서는 대동문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밝히며, 평안농공은행 창고 건물들과 우편국 건물들을 옮긴 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103]. 이후 1924년 대동문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할 때는 대동문 앞의 창고와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거나 이건 되며 정비되었다. 이로 인해 수로를 통한 진입은 약화되었고 대동문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대동문로의 위상은 떨어졌다[104]. 또한 대동문 영역 자체가 공원으로 조성되며 도로와의 연결성이 약화되었고, 도로 체계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4-12] 공원 조성 중의 대동문

[그림 4-13] 1920년대 대동문 상황

도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한 성문들은 문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개별의 상징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민 초기에 성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우회시키며 분리된 영역을 갖는 사례부터 도로의 기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성문의 영역이 변화하는 사례까지 모두 도로 상황에 따른 성문의 변화에 대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동안 도시 조직에서 떨어져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가는 성문의 사례들이 나타났다.

103) 練光亭에 공원, 練光亭 일대 大同門으로 至하는 기간을 획하여,「每日申報」, 1915. 12. 02
104)「대동문공원시설계획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F066-006-014-001.

4.1.3 성벽 잔존 성문의 과도기적 특징

앞선 사례들과 달리 전국적인 성곽 훼철이 이루어진 1910년대 이후에도 성문 주변의 성벽이 훼철되지 않은 일부 도시들이 있었다. 이러한 도시의 성문은 전근대 성곽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주 남문과 수원 4문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1) 의주 남문

의주는 조선 시대 중국으로 통하는 길인 의주로변의 마지막 도시로 국경 방어의 요충지이자 중국의 사신들이 오가던 국방, 외교, 무역의 역할을 담당한 주요 도시였다[105]. 하지만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의주 남쪽에 신의주가 설치되며, 의주는 도시 개발의 관심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1912년 이후 이루어진 시구개정사업은 물론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도 신의주는 포함되었으나 의주는 해당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시 개발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의주는 성벽 훼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도심 내에 많은 성곽이 잔존하게 되었다. 1919년 의주 남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남문에서 연결되는 남북대로의 가로망을 중심으로 성벽에 가로막힌 도심과 성문을 통해서만 진입하는 도시 질서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와의 차이점은 성문 외부 지역까지 도심이 확장되어 성문이 도시 경계의 끝이 아니라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4-14] 의주 남문(1913년 이후)

[그림 4-15] 1919년 의주 남문 상황

105) 이정화, 『의주로변 읍성도시의 도시형태 변화 연구 -황주, 안주, 의주의 지도 분석을 통한 도시형태 비교』,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14, 72쪽

2) 수원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룡문

경의선 철도 부설에 영향을 받았던 의주와 같이 수원의 도시 구조도 철도 부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경의선이 통과하는 주요 도시 중 하나였던 수원은 이를 통한 도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었다. 때문에 식민 지배 이후 개수되는 도로망은 수원역과의 연계성이 강해졌으며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106]. 학교와 종교 시설 등 주요 시설들과 일제가 수원의 농업생산 시설들을 기반으로 설치한 권업모범장 등이 성 외부에 활성화되며, 성외 지역의 도시 개발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수원 성곽의 훼손을 더디게 하였으며, 성벽과 성문이 비교적 많이 잔존하게 되었다[107]. 1919년 지도를 살펴보면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룡문의 4문과 성벽이 여전히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성벽의 잔존은 성문 중심의 교통망을 유지시켰다. 팔달문과 장안문으로 이어지는 남북대로와 동서대로의 十자형의 도로망이 여전히 성곽 내부에서의 주요 교통망이 되었다. 하지만 성문에 집중되는 동선은 도시가 확장해가는 가운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한 팔달문 옹성에 대한 훼철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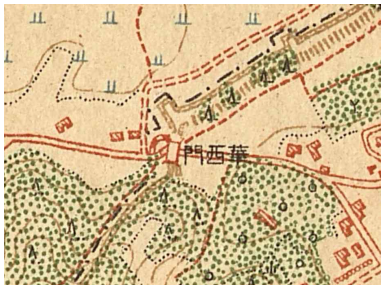
이렇게 성벽이 남겨진 도시들은 전근대 도시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고, 성문을 통과하는 남북 대로가 여전히 도시의 중심도로가 되며 강한 축을 형성하였다. 또한 성 내부의 구도심과 외부의 신시가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여, 성벽이 훼철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실질적인 도시의 출입구로서 성문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문이 성벽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

106) 이동근,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도시변화와 수원 華城」, 『수원학연구』, 5, 2008, 151-152쪽
107) 김병희, 「구한말 일제강점기 전주와 수원의 경관 변화」, 『역사와 교육』, 21, 2015, 610-611쪽

[그림 4-16] 1919년 팔달문 상황

[그림 4-17] 1919년 장안문 상황



[그림 4-18] 1919년 화서문 상황

[그림 4-19] 1919년 창룡문 상황

3가지 성문의 처리 방식은 성벽 훼철 이후 성문과 근대 도시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분절을 보여준다. 성문은 다른 전근대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건물군을 가지지 못하고 단일 건축물로서 도시 한가운데에 남겨졌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주변 환경에서 성문 위의 문루는 이질적인 건축물이 되었다. 특히 성문의 특성상 도로와 밀접하게 위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는 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을 가졌다.

도로와의 연결성이 약해진 사례에서는 이러한 도시 조직과의 분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통섬으로 만드는 방식은 성문와 도시 조직 간의 거리감을 만들었고 이 간격은 도로가 확장되며 계속 멀어졌다. 대신 성문이 가진 도시의 입구성과 전근대적 상징성이 강조되었다. 도로를 우회하는 방식은 보통문처럼 도로가 철도로 끊기거나 흥인지문처럼 우회시켜버리며 동선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였으며, 성문 자체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대동문 또한 기존 도로의 중요도가 약해져 갔으며, 1920년대에는 공원으로 조성되

며, 도로 체계와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였다. 성벽이 남겨진 경우, 과도기적인 모습이 확인된다. 통로의 기능은 다른 도시에 비해 유지되었지만 조선시대와 같이 방어 시설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근대적 용도로 전용되거나 도시의 오브제로 남겨진 모습을 보인다.

성문을 도로에서 처리하는 방식에서 발생한 도시와의 거리감은 이를 고립시켜갔다. 때문에 식민 초기 이루어진 성문에서의 문루 활용은 지속적인 용도보다 임시적인 용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문의 고립이 진행되며 기능적 활용의 가치보다 전근대적 상징성이 강조되는 흐름을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문이 도시 조직에서 분리되어가는 움직임은 타자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식민후기 성문 건축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다.

4.2 공적 활용의 감소와 상징성 강화

4.2.1 관립시설 확보와 공적 활용 축소

도시에 남겨진 기존 건축물들을 공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식민전기 다양한 지방통치시설에서 나타난 양상이었다. 일본은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며 주권을 침탈한 이후로 근대적인 제도들을 확립해나가며 전국적인 근대화 계획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각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근대 통치시설들을 온전히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대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전까지 기존의 한식 건축물들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주택, 객사, 관아 등 다양한 건축물들을 사법, 행형, 학교 시설로 사용하였다[108].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성문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몇몇 성문의 문루를 관립시설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려는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문 건축의 전용은 다른 건축물들의 전용과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관립시설과 같은 지속적인 용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전시나 강연과 같은 일시적인 용도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래 건축물이 가진 상징적인 가치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더라도 유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학교나 병원으로 전용되었던 객사, 관아 등의 사례는 사용 과정에서 본래의 상징성과 의미를 상실하고, 이후 이를 대체할 근대 건축물이 신축되면 건축물의 원형이 사라지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성문 건축의 경우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시를 대표하는 전근대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용도가 사라진 이후에는 오히려 상징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건축적인 형태 또한 유지되었다.

이렇게 성문을 관립시설로 활용하는 양상은 지방 관립시설들이 확보되어

108) 주상훈, 『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 계획의 특징 : 사법, 행형, 교육시설 건축도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94-117쪽

가며 감소세를 보이게 되었다. 식민 초기 조선총독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구축하였고, 각종 규제와 국고 보조 방식을 통해 지방 공사를 통제하였다. 하지만 1919년 3.1 운동 이후 기존의 중앙집권적 관제가 제편되며 지방 통치시설의 권한을 확장하였고, 1923년 간토대지진 이후로는 대공항의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관영 공사를 확대하게 되었다[109]. 중앙 중심의 공사 체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은 각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관립시설들을 신축할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근대시설들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인프라를 확충시켜나갔고, 이는 기존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사용할 이유를 사라지게 하였다.

문루 공간 전용의 약화는 도시마다 시차를 보이며, 이는 도시별로 근대시설이 확충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경성과 전주, 수원의 경우 1910년대 이후 문루 공간을 직접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평양 대동문의 경우 우체국 등 주변 관련 시설들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며[110] 공원이 조성된 1920년대 이후로는 관립시설의 기능을 상실하였고[111], 전시 목적의 활용 또한 1927년을 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개성 남대문은 1924년 도서관 설치계획이 무산된 이후로 기능적인 용도를 상실하였다. 의주 남문은 예외적인 사례로 1910년대부터 상설 전시관인 물산진열관으로 사용되었는데, 1943년까지도 공간을 실내화하여 사용하는 흔적이 발견된다[112]. 이는 의주가 신도시인 신의주의 활성화와 함께 근대 도시로서 역할이 분담되고 이중 도시의 성격을 가지면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인다.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의주는 근대화의 진행이 늦어졌고, 이로 인한 근대시설의 부족이 문루 공간의 활용을 지속시켰다.

활용의 가치가 떨어진 성문은 이후 문루의 건축적 가치만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상징성이 떨어지는 성문

---

109) 이수연, 『1890-1950년대 청부업의 도입과 근대 건설업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1, 93-104쪽

110) 平壤大同門郵便所移轉, 「총독부관보」, 1920. 5. 5.

111) 1920년대 대동문 관련 엽서자료를 살펴보면 체신국으로 활용될 당시 설치한 외벽과 문이 모두 사라진 것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이전 기능이 사라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112) 「보물 의주 남문(南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89-003-002-001.

들이 결국 철거되도록 만들었다. 1927년 청류정으로 이건된 정해문, 1928년 누각이 철거된 혜화문, 광희문, 분견소로 사용되었으나 철거된 해주 남문의 사례들은 끝내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거되는 성문의 사례를 보여준다. 성문 건축은 이후 건축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제되었으며, 상징적 가치만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4.2.2 관광 진흥정책과 성문의 관광 대상화

기능적 활용을 잃어가던 성문은 관광 정책과 함께 상징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관광 산업은 1906년 전쟁의 전적지 관광을 중심으로 한 만한순유선(滿韓巡遊團)의 파견을 시작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후 1900년대에서 1910년대를 거치며 전국에 철도가 개설되고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가 이루어지며 관광을 위해 필요한 교통과 볼거리의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 이전의 학생 중심의 수학여행이 아닌 역사 유적지나 자연경관 중심의 명승지 민간 관광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113]. 이로 인해 조선의 고적들이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도시에 남겨진 성문들은 관광 대상으로 활용하기에 효과적인 건축물이었다. 먼저 성문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전근대 건축물이었다. 이러한 성문의 위치는 도시에 들어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문은 도시의 입구로서 의미와 고적으로서 건축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잔존 성문은 식민 전기부터 고적으로 인식되어왔으며, 기차역에서 내려 도시를 들어오게 되면 어렵지 않게 성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성문은 건축군을 가지기보다 단일 건축물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기 용이했으며, 공원 등 새롭게 조성된 관광지의 입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성문의 상징을 활용한 관광화가 진행되었으며, 당시 제작된 엽서 사진과 조감도 등에서 묘사한 성문에

113)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0, pp369-405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관광 목적을 위한 성문의 활용 양상은 크게 단일 건물로 활용되는 사례와 관광지를 형성하며 사용되는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경성, 전주, 수원, 평양, 개성 등의 도시들은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는데, 특히 경성과 평양에서는 성문을 관광 대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관광과 성문의 관계와 식민후기 성문의 전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그림 4-20] 대동문 엽서 사진

[그림 4-21] 숭례문 엽서 사진

1) 성문 단일의 관광 활용

성문 단일로 관광 대상이 되는 사례는 성문이 남겨진 관광 도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경성의 숭례문, 평양의 보통문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며, 도시의 입구성과 상징이 강조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먼저 경성에서 대표적인 관광 대상으로 사용된 숭례문은 경성역에서 내려 경성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고, 전차와 도로 등 교통망이 집중되는 곳에 있어,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높았다. 이는 숭례문을 관광 코스에 넣어 방문하기에 부담이 없었고,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제작된 『旅程と費用概算』에서 제시하는 관광 코스에는 숭례문이 대부분 경성 관광의 시작점이 되었다[114]. 한편, 숭례문이 훼철되지 않고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임진왜란 당시 한양에 들어올 때 통과한 문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114) 정치영, 「여행안내서 『旅程と費用概算』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관광공간」, 『대한지리학회지』, 53(5), 2018, 735-736쪽

있었는데, 이는 일본이 숭례문을 관광 대상으로 삼기 용이한 상징성이 되었다. 또한 전근대 건축물인 성문은 양식으로 지어진 대형 건축물들이 즐비한 도시 한가운데에 놓여있었다[115]. 성문 주변의 상황은 조선의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는 논리로 식민지배의 정당성를 확보하고자 했던 일본에게 효과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경성의 대표적인 8대 명소 중 하나로 알려지며 대표적인 관광지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116]. 한가지 주목할 점은 8대 명소는 총독부, 경성부청, 조선신궁, 경성역, 용산역, 식물원, 남산공원과 함께 남대문이 포함되었는데, 조선의 건축물을 상징하는 관광지는 남대문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요 간선 도로와 전차노선으로 연결되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높았으며[117], 남대문을 제외한 관광지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 이후 건축되거나 조성된 통치기구들로서 근대화된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이는 숭례문을 전근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인식하였음과 동시에, 신식으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들과 대조시켜 일본에 의해 근대화된 경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숭례문은 공원으

[그림 4-22] 숭례문이 삽도된 엽서 사진

115) 정치영, 위의 논문, 739쪽
116)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54-55쪽
117) 원종혜,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 『역사와 경계』, 100, 2016, 149-1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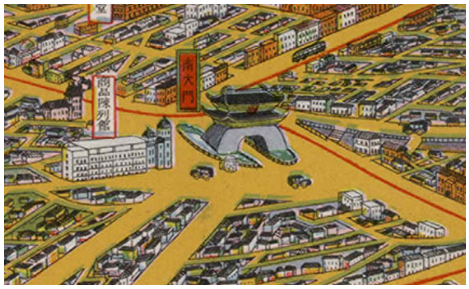
로 조성되던 경복궁과 창덕궁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해 선택되어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상징화된 숭례문은 당시 제작된 사진엽서들에서 확인된다. 경성을 소개하는 사진엽서에서는 숭례문을 삽도하여 제작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경성을 홍보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숭례문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숭례문과 함께 조선 신궁이나 도시화 된 경성의 이미지를 배치하여 숭례문을 활용하는데 있어 일본이 의도한 방향성을 확인시켜 준다.

평양의 경우 많은 유적과 명승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적지로써 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평양에서 출토된 낙랑 유물들은 중국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로 여겨, 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찾던 일본에게 있어 유용한 사료가 되었다. 또한 당시 조선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조선만의 이미지를 요구하였기에, 평양의 고적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았다.

이러한 평양에서 보통문은 다른 성문의 사례와는 다르게 식민 초기부터 본격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며 지켜져 온 성문이다. 때문에 대동문이 관립시설로 전용되던 상황 속에서도 보통문은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채 건축적 가치만이 강조되어 상징적인 건축물로 존재하였다. 이는 보통문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인 보존의 영향도 있지만, 대동문과 달리 도심에서 벗어나 위치했던 보통문의 장소적 특징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부족은 관광 대상으로 가치를 다소 떨어뜨렸지만, 평양의 상징으로 충분히 활용되었다. 특히, 평양을 출입하는 철로 앞에 위치하여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평양의 입구가 되었고, 고도(古都)의 평양이 가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숭례문과 보통문의 양상은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가 1929년 관광 지도로 제작한 조감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감도에서는 주요 성문들을 강조하여 묘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일 건물로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숭례문과 철로 옆에 위치한 보통문이 확인된다. 이는 단일 건물로 활용된 성문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4-23] 서울관광지도(1929) 숭례문

[그림 4-24] 평양조감도(1929) 보통문

2) 관광지 형성을 통한 성문 활용

다음은 단일 건물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닌 주변의 관광지와 함께 활용되거나 성문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지를 형성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일 건물의 상징도 가지고 있지만, 관광지의 조성과 함께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는 경성의 흥인지문, 평양의 대동문과 북성의 성문들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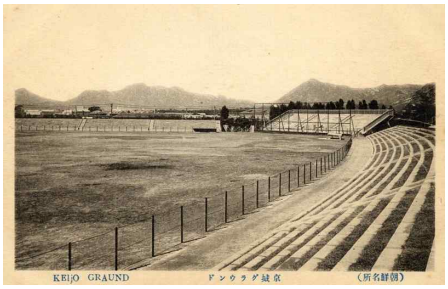
먼저 흥인지문은 관광 대상으로 인식되기 하였으나, 숭례문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며 관광 코스로는 주목받지 못했다. 흥인지문의 상황은 관광 대상으로의 활용에 있어 접근성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숭례문에 비해 중요도는 떨어졌지만, 경성의 대표적인 성문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또한 교통섬이 되어 도로 한가운데 놓인 숭례문과 다르게 흥인지문은 도로를 우회하여 독자적인 공간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의 역할을 했으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흥인지문은 1925년 10월 15일 경성 운동장이 건설[118]되며 위상이 달라졌다. 경성 운동장은 1925년 일본의 동궁인 쇼와 덴노(昭和天皇) 결혼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성부 토목기사 오오모리(大森)가 설계하여 건설되었다[119]. 이를 위해 흥인지문 남측에 일부 남겨져 있던 성벽을 완전히 훼철하였고 주변 정비가 이루어졌다. 경성 운동장이 건설되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

118) 김명권, 박기동, 「한국 스포츠의 塵室,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인류학연구』, 2010, 5(1), 50쪽
119) 유군팔, 「조현신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본 경성(京城)운동장의 장소성」, 『기초조형학연구』, 15(2), 2014, 337쪽

중되고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제공되자, 공공장소로서 흥인지문의 역할은 경성 운동장으로 옮겨지게 되었다[120]. 이로써 흥인지문은 경성 운동장의 입구가 되어, 관광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4-25] 사람들이 모이는 흥인지문



[그림 4-26] 경성 운동장 전경

한편, 평양에서는 역사적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조성된 공원은 서기산 공원이다. 주요 관공서들이 위치한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시설이 미비하고 일본인들이 주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일본인 공원으로 인식되던 곳이었다.[121] 서기산 공원 이후 1923년 대동문 공원과 1924년 모란대 공원이 조성되는데 두 공원 모두 명승지와 고적들을 포함한 역사공원으로 평양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평양의 대동문과 모란대 공원에 위치한 칠성문, 전금문, 현무문은 관광 대상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모란대 공원에 위치한 칠성문, 전금문, 현무문은 공원의 입구가 되어 관광지로 활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는 1930년대 중반을 지나서야 이루어진다. 그전까지는 성문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1936년 모란대 공원 건축물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퇴락한 상태였다. 하지만 모란대 공원을 방문하는 관광 노선에 성문들이 항상 포함되었고, 관광지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성문 자체의 의미보다 성문이 속한 관광지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며, 성문들은 모란대 공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120) 정은주, 「한양 도성의 동문, 흥인지문과 주변 이야기」, 『미술사와 문화유산』, 2016, 87쪽
121)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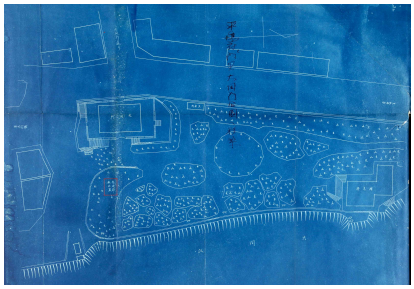
[그림 4-27] 모란대 공원의 칠성문

[그림 4-28] 모란대 공원의 전금문

이와 다르게 대동문은 공원 조성과 함께 정비가 이루어졌고 식민전기와 다른 양상의 활용이 이루어졌다. 역사적 관광 도시로 발전하던 평양에서는 대동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평양을 여행하는 코스에 대동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통해 평양의 관광자원 중 대동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122] 대동문 공원 조성에 대한 언급은 191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 1915년 매일신보 기사에서 대동문 공원 조성 계획을 보도하며 대동문 앞을 정비한 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123]. 이를 위해 대동문 영역을 점유하고 있던 체신국과 평양부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였고 본격적인 공원 조성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 연광정 앞에 신축했던 전화교환소를 평양 본정에 위치한 우편국 내부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되었고,[124] 1921년에는 대동문 앞에 위치한 창고 건물들을 철폐하고 그 부근을 정돈하며 공원 계획이 착수되었다.[125] 이후 1923년이 되어야 대동문과 연광정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체신국과 평양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대동문 공원이 조성될 수 있었다.[1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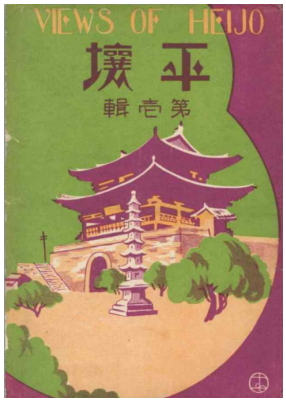
122) 정치영, 「여행안내서『旅程と費用概算』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관광공간」, 『대한지리학회지』, 2018, 740쪽
123) 練光亭에 공원, 練光亭 일대 大同門으로 至하는 기간을 획하여, 「每日申報」, 1915. 12. 2
124) 平壤電話交換所, 「東亞日報」, 1920.09.06
125) 一大公園計劃, 「東亞日報」, 1921. 8. 25
126) 大同門公園 설치하기로 작정, 「每日申報」, 1923. 1. 26



[그림 4-29] 대동문 공원부지 배치도

[그림 4-30] 대동문 공원 전경

조성된 대동문 공원은 앞서 설명한 평양의 관광자원과 연결되며 역사공원으로서 가치를 강조한다. 대동문 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부터 역사적 가치를 가진 대동문과 연광정을 중심으로 드러내며 공원 조성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원 조성이 진행된 후, 주변 고적들을 공원 내로 이전시키는 양상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먼저 1925년 총독부문서에서 평양역 앞에 옮겨져 있던 흥복사지 칠층석탑을 대동문 앞쪽으로 이전했다는 기록이 있다.[127] 이후 대동문이 포함된 엽서 사진들에서는 항상 흥복사지 칠층석탑과 대동문이 같은 구도로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칠층 석탑뿐만 아니라 대동관 앞쪽에 있던 종각을 1927년 대동문과 연광정 사이 부지로 이전했다.[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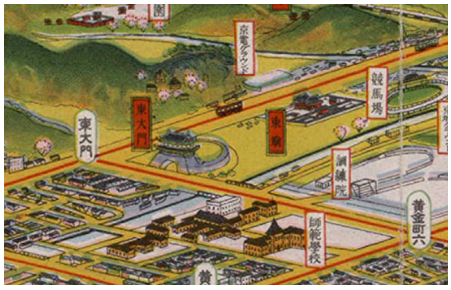


[그림 4-31] 대동문과 흥복사지칠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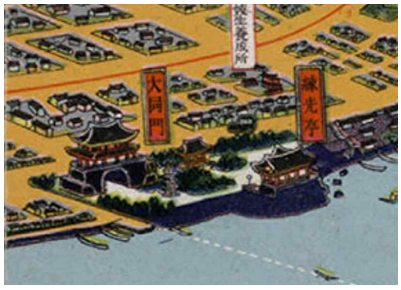
127) 『대정 14년부터 쇼와 3년까지 고적보존』 중 「칠층석탑 이전 건」
128) 『제26회 고적조사위원회』 중 「평양 이문리 소재 종각을 이전하는 건」

조감도에서 표현된 성문을 살펴보면 남쪽에 경성운동장이 건설된 흥인지문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대동문 주변, 모란대 공원의 성문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성문들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보완하였다. 성문들은 입구성 혹은 역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징성이 강조되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도시에 남겨진 성문들은 관광 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식민전기의 기능적인 활용에서 상징적인 활용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써 점차 성문은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닌 도시에 전시된 옛 건축물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도시 전시물로서의 역할을 조성해나갔다.



[그림 4-32] 서울관광지도(1929) 흥인지문



[그림 4-33] 평양조감도(1929) 대동문

[그림 4-34]
평양조감도(1929) 칠성문

[그림 4-35]
평양조감도(1929) 전금문

[그림 4-36]
평양조감도(1929) 현무문

4.3 문화재 제도의 확립과 해방 이후 영향

4.3.1 '보존령'의 제정과 전근대 형태의 재현

상징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던 성문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의 제정과 함께 문루의 기능적 활용이 완전히 소멸되고 문화재로서 정착되었다. 고건축물에 대한 법적 보존을 처음으로 명시한 「보존령」은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들을 '보물 건조물'로 지정하고 수리공사에 대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며 현재 한국 수리공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129]. 이전까지 성문을 비롯한 전근대 건축물들은 1910년 제정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통해 관유재산이나 향교재산에 포함되어 통치기관의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다[130]. 하지만 「보존령」이 제정되며 재산이 아닌 문화재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방향도 식민 전기와 다르게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

「보존령」 제정의 배경에는 조선총독부의 관광 진흥정책과 관련이 있다. 1920년대부터 민간 관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근대 건축물들이 관광 대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총독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관광 진흥정책을 전개하였고, 관광지로 활용할 건축물들을 선택하고 정비하기 위해 고적조사와 보수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131]. 이러한 상황은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보존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잔존한 성문들은 「보존령」에서 정의하는 보존 대상이 되어 관리가 이루어졌다. 보물 건조물로 지정된 성문은 경성 숭례문, 흥인지문, 개성 남대문, 평양 보통문, 대동문, 의주 남문으로 총 6개소였으며[132] 수원성의 성문들과 같이 고적에 포함되어 일괄적인 관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129) 서효원, 위의 논문, 2018
130) 서효원, 위의 논문, 2018, 27-28쪽
131) 서효원, 위의 논문, 2018, 121-125쪽
132) 1934.08.27.에 제1호 경성남대문, 제2호 경성동대문, 제10호 개성 남대문, 제136호 평양 대동문, 제138호 평양 보통문, 1939.10.18.에 제307호 의주남문 지정되었다.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일람」,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H052

러한 6개의 성문은 식민 초기 세키노 타다시가 진행한 고적 조사에서 갑과을 등급으로 평가된 바가 있다. 이는 당시 성문을 평가했던 건축적 가치가 「보존령」에서 보물 건조물을 지정할 때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평가 기준에 큰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4년 「보물 목조 건조물 대수선 10개년 계획」(이하 「대수선계획」)을 수립하여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들을 선정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대수선계획」에 포함된 성문들은 수원의 팔달문, 장안문, 창룡문, 평양 대동문, 의주 남문이었다[133]. 이처럼 공사 대상은 보물 건조물로 지정되거나 고적으로 포함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보수 공사가 진행될 때 주변 성문들도 함께 수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34]. 이 중 수원 장안문과 창룡문 그리고 평양 대동문의 수리 과정을 통해 식민후기 성문 보수·복원의 과정과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135].

1) 수원 장안문과 창룡문 : 방치 성문에 대한 보수·복원

수원 장안문의 보수 공사는 1935년 착수하여 1937년 완공되었으며, 창룡문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진행되었다. 장안문은 문루인 장안문각과 옹성, 그리고 옹성의 누각인 옹성문각까지 3부분에 대해 진행되었다[136]. 이는 성벽 가장 하부의 지복석 이상을 전부 해체하는 대규모 공사였다. 기초석 교체부터 문루 지붕의 서까래와 기와의 보수까지 진행되었고, 무너진 옹성벽과 옹성문각에 대한 복원도 이루어졌다[137]. 창룡문에서는 창룡문각과 옹성에 대해

---

133) 「국유 보물 건조물 보존 계획」,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F104-019-005-001~002

134) 평양의 전금문, 칠성문, 현무문은 「대수선계획」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동문 보수될 때 함께 공사가 진행되었다. 1935년 10월 6일 「每日申報」에서는 대동문은 총독부에서 전금문은 평양부에서 개축한다고 보도하며 공사 주체는 달랐지만 「대수선계획」과 함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양의 주요 관광지였던 모란대 공원의 성문들에 대한 보수를 「대수선계획」과 진행한 것은 「보존령」의 배경에 관광 정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35) 수원 팔달문의 경우 보수 공사가 계획되었으나 해방 이후까지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의주 남문은 1943년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기단 정비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인 보존 방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36) 「쇼와 9년-11년 보존비 관계 서류, 경기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78-010.

137) 수원화성박물관, 『마음으로 그린 꿈, 역사로 이어지고 - 도면에 담긴 우리 건축』, 2011, 236쪽

보수하였는데 1939년 문루 보수 공사 이후 1941년까지 옹성에 대한 수리가 진행되었다[138].

[그림 4-37] 장안문 보수 공사 전

[그림 4-38] 장안문 보수 공사 후

두 성문의 공사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성문에 대한 보수·복원이 문루뿐만 아니라 옹성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식민전기 성문의 보수 공사는 문루에 집중되어 있었고 육축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육축을 비롯한 성문 앞의 옹성은 통행을 방해하는 철거의 대상이었으며, 보존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무너져 철거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옹성에 대해 복원을 진행한 것은 식민후기의 보존 정책이 전기보다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와 함께 원형 복원의 방향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장안문과 창룡문의 보존 수리공사 총칙에서는 "본 수리는 원형의 복구를 본래의 취지로 하여 옛 형식·수법은 절대 보존하는 방침을 취함"이라 밝히고 있으며 원형 복원을 위해 『화성성역의궤』를 통한 문헌 연구까지 진행하였다[139]. 이는 당시 보수·복원 공사가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된 성문을 온전한 전근대 이미지로 복구하려는 방향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

138) 「수원성곽 및 창룡문(蒼龍門) 수리 공사」,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32

139) 황연경의 논문은 장안문 준공보고서에서 "전기의 판문(창호)은 『화성성역의궤』의 도면에 의하여 북면은 모두 화살 구멍을 뚫고, 그 외 3면은 모두 화살 구멍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협문은 옹성 출입구에 홍예문 판문은 서측 협문의 판문이 남아있어 모두 이것을 따라서 나무를 만듦. 화성문은 『화성성역의궤』에 의하여 판문을 그림"이라고 기록된 내용을 통해 수원 성문의 수리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황연경, 『일제강점기 수원 화성 보존수리 공사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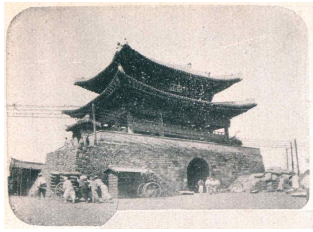
2) 평양 대동문 : 변형된 성문에 대한 보수·복원

평양의 대동문 보수·복원 공사에서는 이러한 전근대로의 복구 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식민전기부터 대동문은 일제에 의해 문루 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건축적인 변형이 수반되었다. 당시 촬영된 사진과 1935년 보수·복원 공사 당시 실측 도면을 통해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140]. 1907년 대동문이 체신국 관련 관립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어칸만 설치되었던 1층 마루를 전면 3칸으로 확장하고, 1층 마루 밑 공간까지 문을 설치하여 사용했던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1층 마루 밑의 층고는 원활히 사용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축 상부를 절삭하여 높이를 확보하였다. 1915년 대동문 사진과 복원 참고 사진에서 초석부가 노출된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본래 통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2층 마루를 설치하여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올라가기 위한 계단을 두고 1층에서 문루에 진입하는 계단의 방향을 반대로 변경하였다. 1924년 대동문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며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벽체와 문들은 제거되었지만, 확장된 1층과 2층 마루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4-39] 노출된 초석부

[그림 4-40]
1905년 이전 대동문

[그림 4-41]
1915년 대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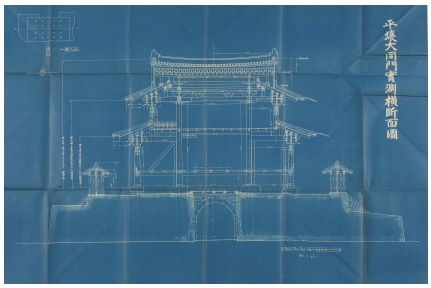
[그림 4-42]
1924년 대동문

140) 「대동문 수리공사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8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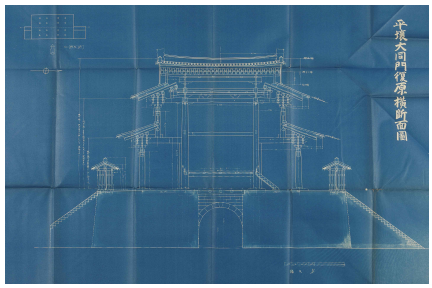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대동문은 「대수선계획」에 포함되어 1935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939년 복원 공사까지 이루어지며 개축되었다[141]. 공사는 성문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보수 공사가 아닌 적극적인 복원의 방향을 가졌고, 이는 복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보물대동문현상변경이유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42]. 해당 문건에서 밝히고 있는 대동문의 현상변경 대상은 다음과 같다.

一. 하층 석축 부분에 관한 현상변경
二. 하층상 구조의 복원
三. 누문 층상의 취급

문건은 육축부와 문루에서 마루가 주 복원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육축부에서는 성문 좌우의 진입 석단과 여장 그리고 절삭된 육축 상부의 문루 지반을 복원하였으며, 옹성을 복원하지는 않았지만 옹성 위치에 토단을 둘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문루는 마루 구조 복원에 집중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확장되어 설치된 1층 마루와 2층 마루를 제거하고 마루 진입 계단을 기존의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복원 공사의 내용은 공사 과정에서 제작된 실측 도면과 복원 도면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143].



[그림 4-43] 평양대동문 실측 횡단면도



[그림 4-44] 평양 대동문 복원 횡단면도

141) 대동문 개축완성, 「新韓民報」, 1939. 9. 14
142) 「평양 대동문 현상변경 이유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13-085-007-001~011.
143) 「대동문 현상변경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13-085-011~012

복원된 대동문은 조선 후기 제작된 평안감사향연도에서 묘사하는 대동문의 형태와 유사하다[144]. 이는 대동문 복원 공사에서도 수원의 성문의 사례와 같이 원형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근대 대동문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었음이 추측된다. 이처럼 대동문에 대한 보수·복원 공사는 근대 시기 변형의 흔적을 지우고 원형 복원에 대한 의도가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5] 평안감사향연도에 묘사된 대동문과 연광정

「보존령」 이후 조선총독부는 식민 전기의 방치에 가까웠던 소극적 보존에서 복원까지 진행하는 적극적인 보존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진행된 보수 공사는 근대 이전의 성문으로 복구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이전 시기 동안 변화된 흔적을 지우고, 조선의 전통적 이미지를 제공할 관광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처럼 「보존령」의 제정으로 성문은 문화재가 되었고, 상징성과 건축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성문을 사용하는 건축이 아닌, 상징성만 남겨져 오직 관상을 위한 '도시 전시물' 되도록 만들었다.

식민후기에 나타난 성문의 변화는 성문과 도로의 배치, 관립시설의 신축 그리고 관광 대상화가 이루어지며 보호 대상의 문화재로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성문 건축이 조선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써 주변 도시 조직과 분리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민전기의 잔존 성문은 방치 형태의 유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시를 대표하는 성문들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144) 18c 김홍도가 평안감사부임 환영 연회광경을 묘사한 그림으로 조선시대의 대동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덕수 5769.

도로가 우회하거나 교통섬으로 배치되는 성문의 상황은 도시에서의 고립화를 불러왔고, 관립시설의 확충은 성문의 문루 공간을 사용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문이 관광 대상으로 이용되며 기능적 가치보다 상징적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보존령」을 통해 기능적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문화재로 전환되었다. 식민후기 성문의 전환은 전근대의 건축물이 상징화되고, 도시에서 분리되며 결국 과거의 상징으로 박제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에 의한 완전한 타자화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렇게 타자화를 통해 형성된 문화재로써 성문의 역할은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며 고착화되었다. 결국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성문 건축은 식민후기 형성된 상징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남겨진 성문 건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4.3.2 해방 이후 문화재 지정과 복원

1) 남·북한의 문화재 제도와 지정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할 여력이 없었다. 전후 파괴된 주요 문화재를 복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대상조차 한정되었다. 때문에 「보존령」은 자체적인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를 준용하였다[145]. 북한의 경우 1946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였으나 「보존령」을 조정하는 정도에 그쳤고, 이후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할 때까지 이어졌다[146]. 이는 해방 이후까지도 「보존령」이

145) 1962년 「문화재보호법」은 해방 이후 문화재보호에 대한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법령의 제정에 있어서 이전의 「보존령」과 1950년 일본에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유지하거나 수용하였다. 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비롯한 위원회의 설치, 관리 단체의 지정 등의 규정에서 이러한 영향이 확인된다. 최윤정,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24-32

남한과 북한의 문화재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문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문화재로 선택되며 잔존할 수 있었던 성문들은 식민 후기 성립된 문화재로서 역할을 이어나갔다. 특히 고적 조사부터 이어진 잔존 성문들에 대한 건축적 가치 평가는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문화재 지정 상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보존령」의 효력이 유지되며 이전에 보물로 지정되었던 성문들이 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 문교부[147]에서 제작한 『지정문화재목록』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지정문화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남한에서는 서울 숭례문과 흥인지문과 수원성곽, 북한에서는 개성 남대문, 평양 대동문과 보통문, 의주 남문이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일람」에서 명시된 성문 문화재 목록과 일치하며, 「보존령」이 해방 이후 가졌던 영향을 보여준다.

불가피한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보존령」을 기반으로 한 문화재 제도가 이어졌지만, 남한과 북한은 자체적인 제도의 확립과 보완을 진행하며 이전의 보물로 지정되지 못하였던 성문들에 대해서도 주목해나갔다. 먼저 남한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며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국보로 구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의 숭례문이 1962년 12월 20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또한 「보존령」에서 주목받지 못한 성문들에 대해 건축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전의 성곽 전체에 포함되어 분류되었던 수원 성문들을 개별적인 건축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팔달문과 화서문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전주의 풍남문은 고적 조사에서 丙 등급을 받고 일제강점기 보물 지정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주목되지 못하였으나,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며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북한의 경우 문화재 지정의 명확한 연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정 현황을 통해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148]. 평양의 보통문과

146) 이규창, 「북한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010, 122-125

147) 문교부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등 문화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기관이다. 1990년 12월 26일 교육부로 개편될 때까지 문화재 관련 정책들에 대해 영향력을 가졌다.

148) 『북한 국보유적 연혁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대동문, 의주 남문, 개성 남대문과 같이 이전의 보물급으로 평가되었던 성문들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못하였던 평양의 칠성문과 전금문까지 국보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이미 사라진 해주 남문의 터 또한 국보 유적으로 판단하는데, 국보급 문화재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건축물의 실존과 연속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복원 성문에 대한 문화재 지정에서도 나타난다. 평양의 대동문과 수원의 장안문은 전쟁 중에 파괴되어 전후 복원된 성문이다. 이에 수원 장안문은 원형 훼손의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대동문은 대대적인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평양의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재 가치평가 기준에 차이를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보존령」의 영향력이 해방 이후까지 유지되며, 문화재 제도의 확립을 비롯한 문화재를 평가하는 기준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 모두 같은 제도적 기반에서 시작되었지만, 제도적인 보완과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여기서 현재의 성문 건축의 문화재로서 역할과 평가하는 기준이 식민후기의 문화재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역	성문명	지정현황
남한	서울	숭례문	국보1호
		흥인지문	보물1호
		창의문	보물1881호
	수원	팔달문	보물402호
		화서문	보물403호
	전주	풍남문	보물308호
북한	평양	보통문	국보유적 제3호
		대동문	국보유적 제4호
		칠성문	국보유적 제18호
		전금문	국보유적 제22호
	의주	의주남문	국보유적 제52호
	해주	순명문터(해주남문)	국보유적 제72호
	개성	개성남문	국보유적 제124호

[표 4-1] 주요 도시 성문 문화재 지정 현황

2) 전후 복구 사업과 문화재 보수·복원 방향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문화재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잔존 성문들 역시 폭격으로 인한 파괴와 훼손을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전후 문화재 정책에 있어 문화재 복구는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특히 분단되며 나뉘어진 각 국가의 수도에서 주요 성문의 보수와 복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남한의 성문 건축 중 서울의 숭례문 보수 공사가 가장 이른 시기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휴전 이후 1952년 폭격으로 일부 파괴된 숭례문에 대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미흡한 보수의 한계와 지반의 문제로 건축적인 하자가 발생하였고 재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1961년부터 1963년까지 2년간 해체·수리공사가 이루어졌다[149]. 진행된 해체·수리공사는 지붕부터 석축까지 모두 해체가 진행된 대공사였으며, 창건 당시의 원형 복원을 목적으로 하였다[150]. 또한 공사 진행과 함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며 숭례문이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숭례문이 해방 이후 서울에서 가졌던 중요도와 함께 국가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또한 흥인지문의 경우 1958년 지붕 번와 공사와 옹성 및 여장 보수가 진행되었으며, 수원에서는 1975년 수원성 복원정화 사업으로 잔존 성문의 보수와 파괴된 장안문과 창룡문을 복원하였고, 전주 풍남문은 1978년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지며, 주요 잔존 성문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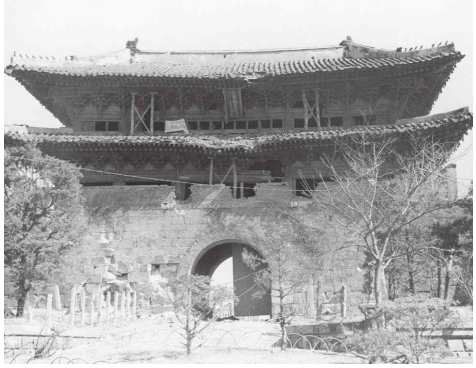
한편,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는 보통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문 건축들이 파괴되었다. 이는 보통문이 가진 신문(神門)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게 되었으며, 평양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유지된 성문이라는 점에서 평양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각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보통문에 대한 수리와 함께 파괴된 성문들에 대한 복구공사를 1954년 진행하였고, 대동문과 현무문의 경우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51]. 평양뿐만 아니라 개성 남대문은 1955년에 의주 남문은 1958년에 복원이 이루어졌다.

---

149) 장호수, 「전쟁과 문화유산-전후 복구와 문화유산 제모습 찾기」, 『625전쟁과 문화유산 보존』, 2020, 49-51

150) 『문화재청 50년사 본사(本史)편』, 문화재청, 2011, 64-65

151) 주강현, 「북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 『통일경제』, 2000, 89-90



[그림 4-46] 1950년 훼손된 숭례문

[그림 4-47] 1963년 숭례문중수준공사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파괴된 성문 건축들을 보수·복원하였고, 전후 피해에 대해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보수와 복원이 진행된 성문들은 다시금 도심 가운데에 놓여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문의 상황은 식민 후기와 상징을 활용하는 주체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 의해 활용된 성문의 상징성은 지배국가의 입장에서 선택한 피지배국가의 흔적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반면, 전쟁 이후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축물로써 이를 활용하였다. 때문에 현재의 성문은 식민 후기 형성된 문화재로서 역할을 기반으로 해방 이후 전환되는 상황과 함께 이해되어야만 한다.

3) 지방 도시의 읍성과 성문 복원

일제강점기부터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잔존한 주요 도시의 성문 이외에도, 주목받지 못하며 방치되거나 사라졌던 지방 도시의 성문들에 대해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읍성의 복원 과정에 포함되어 전근대 성곽 도시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성곽의 복원이 어려운 경우 성문만 복원되는 사례들도 나타났으나, 최종적으로 성곽 복원까지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성문을 비롯한 읍성 복원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나타났으며 서산 해미읍성을 시작으로 한다. 먼저 1970년 진남문의 해체보수와 함께

1974년 동문과 서문에 대한 복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성문들은 전통적인 입구로서 역할을 가졌으며 기존 성곽의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 이후 1975년부터 81년까지 성곽 내부의 민가와 학교를 철거하고 객사와 동헌을 복원하며 근대 이전의 읍성 구조를 재현해나갔다[152]. 이렇게 복원된 해미읍성은 사적 공원의 성격을 가지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해미읍성의 사례와 함께 낙안읍성, 나주읍성, 강화읍성 등 성곽이 남아 있는 지방 도시에서 성곽과 성문에 대한 복원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표적 관광지로 활용되었다.

[그림 4-48] 해미읍성 전경

[그림 4-49] 복원된 진남문

대구의 남문이었던 영남제일관의 복원은 성곽 유구 없이 성문만 복원된 사례이다. 식민 초기 성벽 훼철과 함께 철거되었던 남문을 1980년 대구상징물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성구 망우공원에 복원하였다[153]. 실질적인 문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전근대 대구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건축물로써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복원된 대구 남문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도시 밀도가 높아진 대구의 도심 내에 성문을 복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 외곽의 망우공원으로 옮겨져 지어졌다. 이러한 성문의 위치는 기존 성곽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 성문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또한 복원된 성문은 철거 이전의 성문과 규모, 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 철거 이전의 자료를 보면 좌우에 기둥이 하나씩 더 설치되어 협칸과 함께 정면 5칸의 규모를 가졌으나, 현재의 남문은 협칸 없이 정면 3칸으로 복원되었다. 이

152) 서왕우, 『읍성의 보수정비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2004, 16-19
153) 70년전 일제가 헐어버린 대구남문 복원키로, 「中央日報」, 1978.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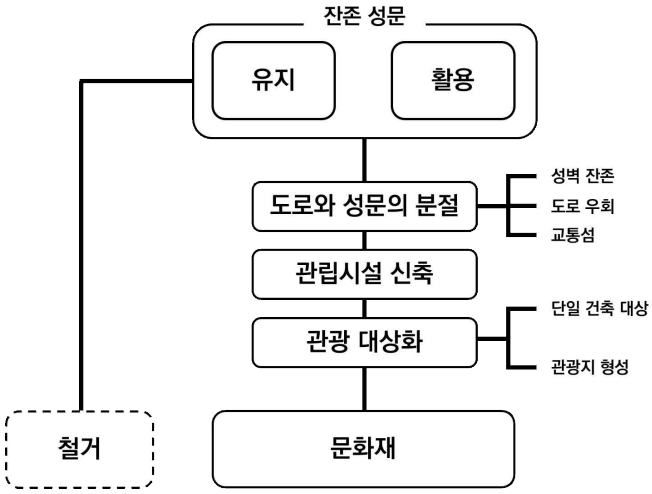
러한 대구 남문의 복원은 성문 건축의 상징적인 활용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적절한 복원이었나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0] 일제강점기 대구 남문

[그림 4-51] 1980년 복원 이후 대구 남문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홍성의 조양문, 진주의 공북문 등 많은 성문이 복원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방 도시의 새로운 복원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도시들은 이를 통해 관광 산업과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성문을 전근대 성곽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한 경제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식민시대에 일어난 타자화의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성문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충분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올바른 복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4 소결



[그림 4-52] 식민후기 성문 변화 양상

식민후기 성문의 변화는 일본에 의한 타자화의 결과물이었다. 타자화의 움직임은 식민전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식민후기에 이르러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타자화된 성문 건축은 문화재로서 역할이 확립되었으며 해방 이후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이에 남한과 북한의 성문 건축에서 나타난 식민후기의 영향과 현재 성문 건축의 양상을 살펴보며, 일제강점기 성문 건축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잔존 성문과 도로와의 관계는 분절되어가는 성문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도로 배치의 주류를 이루었던 교통섬 방식은 성문을 도로 한가운데에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으며, 주변 도시 조직과 맥락을 형성하는 대신 독립된 객체로 남기며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나타냈다. 이에 경성 흥인지문, 평양 보통문, 대동문과 같이 도로를 우회시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동선으로써 성문의 역할마저 축소했으며, 전근대적 상징성을 강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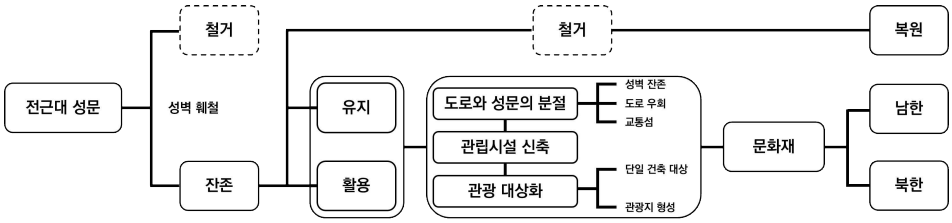
였다. 한편 의주 남문과 수원 성문들과 같이 성벽이 남아 있던 성문의 사례들은 적극적인 도로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과도기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도시 조직과 분리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지방 관립시설의 확충은 성문 건축이 전용될 이유를 사라지게 하였다. 그리고 이후 전개된 성문의 관광 대상화를 통해 조선을 보여주는 도시 전시물로 활용되었다. 관광 목적의 성문 활용은 단일 건물에서부터 성문 중심의 관광지를 형성하는 것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전근대의 상징성과 건축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성문 건축의 전개는 1933년 「보존령」의 제정과 함께 상징성만 남겨진 문화재의 역할이 확립되면서 온전히 타자화된 성문의 역할이 정착되었다. 수원 장안문과 창룡문, 평양 보통문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식민 전기의 보존 방향과는 다르게 고증을 통한 원형 복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는 조선의 이미지를 제공할 관광 대상으로의 활용하기 위함과 동시에 조선의 건축물에 대한 타자화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그리고 타자화를 통해 형성된 성문 건축의 역할과 건축적 가치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해방 이후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자체적인 문화재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보존령」의 효력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남북한에서 보물로 지정한 성문 목록이 「보존령」에서의 보물 지정 목록과 일치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방 이후 성문 건축의 양상에서 훼손되거나 유실된 성문들에 대한 복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성문 복원은 전후 복구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도시의 성문들에 대해 보수와 복원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비된 성문들은 자국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축물로써 활용되었다. 이는 비록 남북한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문화재 제도와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타자의 시선에서가 아닌 자의적인 평가와 해석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후의 복원은 주목되지 못하고 사라져갔던 지방 도시의 성문들까지 확장되었다. 해미읍성의 사례와 같이 성곽과 함께 복원된 성문은 전근대 성곽도시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고 지방 관광 활성화의 효과

를 거두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도시에서 관광 산업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성문과 성곽에 대한 복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만 중시된 성문 건축의 활용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행했던 타자화된 수단으로의 활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해석과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그림 5-1]. 일제강점기 성문의 변화 과정

성문의 전근대적인 역할은 성벽 훼철과 함께 사라졌으며, 이 과정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성문들이 철거되었다. 일부만이 전승지적 상징, 고적으로의 인식,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잔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잔존 성문에 대한 인식과 활용의 흐름을 추적하여, 일제강점기 성문의 변화 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성문의 변화 과정은 일본에 의한 타자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지배 국가였던 조선의 문화를 분리하며 열등한 타자로 만들고자 하였고, 이러한 시도들이 성문 건축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 과정은 성벽 훼철 이후인 식민전기와 보존령 제정 이후인 식민후기로 나누어지며 시기에 따라 타자화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식민전기는 성문에 대해 소극적인 보존 방향을 가졌으며, 대부분 방치 형태의 현상 유지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보존은 문루에 집중되었고, 육축은 도로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 조정과 훼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잔존한 성문들은 문루 공간을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공간을 유지하며 사용하는 방식과 내부 공간으로 변형하여 사용방식으로 나뉜다. 공간을 유지하는 사례는 문루의 상징성을 활용하며, 소극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이용되었다. 문루를 내부화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관립시설의 기능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속하지 못하였고, 1920년대 이후에는 임시적인 용도의 활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루의 활용이 도시에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문 잔존의 이유가 문루의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의 측면에서도 주목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식민전기 양상은 불완전한 타자화의 형태로 해석된다. 조선의 상징성을 가진 성문 건축에서 일본의 산업 발전을 홍보하는 전시가 개최된 것과 같이 타자화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관립시설이나 강연 시설 등 공간 자체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식민전기의 변화는 타자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온전한 분리가 진행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특징을 가진다.

식민후기에는 문루 공간이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상징성이 강조된 도시 문화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의 건축물로 완전하게 분리된 타자화가 이루어졌다. 도로와 성문의 배치 관계는 도시 조직과의 거리감을 만들었고 문루를 고립시켜나갔다. 이는 성문의 활용도를 떨어뜨렸고, 상징적 가치를 강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1920년대 이후 근대 관립시설들이 확보되면서 문루 공간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관광 정책의 추진으로 성문은 관광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933년 「보존령」이 제정된 이후 문루의 기능적 활용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문화재로서 자리 잡았다. 이후의 보존 방향은 현상 유지에 그치지 않고 원형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루뿐만 아니라 석축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졌으며, 성문의 전근대적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문을 관광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내부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이후 성문은 활용하는 건축이 아닌, 과거의 모습으로 박제된 문화재가 되었다. 이처럼 기능을 상실한 문화재로의 전환은 도시 조직과 분리되어 조선의 상징성만 남겨진 타자화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재로써 성문의 역할은 해방 이후로도 이어졌다. 전쟁을 거치면서 수립된 두 국가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제정된 「보존령」을 활용하였다. 때문에 「보존령」에서 보물로 지정한 잔존 성문의 목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자체적인 제도가 제정과 함께 주목받지 못했던 성문 건축들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었고, 이전의 문화재 평가 기준을 보완해나갔다. 한편, 이 과정에서 남한에서는 복원된 장안문을 보

물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대동문과 같이 전후 복원된 성문들을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하는 차이를 보인다. 남한과 북한이 복원된 건축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후 복원 과정을 거치며 잔존한 성문들뿐만 아니라 사라진 성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복원된 성문들은 전근대 성곽도시의 상징이 되어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새로운 복원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복원을 위해서는 성문이 겪어온 변화 과정을 인지하고, 타자화를 통해 형성된 성문에 대한 해석을 주의하여,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해 충분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성문 활용 방식에 집중하여, 전근대적 상징을 가진 건축물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그 역할이 전환되는 과정을 밝혔다. 일제강점기의 성문은 활용의 대상에서 관상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문루 공간의 전용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후 문루가 관상을 위한 문화재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타자화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문루의 도시에 놓인 오브제로서 성문의 역할이 형성된 배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중요 문루가 위치했던 도시로 대상을 한정하여 전체적인 문루 상황에 대한 양적 분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추가적인 근대 자료가 축적되고, 나아가 해방 이후까지 연구를 확장한다면, 전근대 이후 문루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朝鮮王朝實錄』

『練光亭示而順立之』, 최경창

『建築所事業概要 第1次』

「朝鮮總督府官報」

「개성 남대문 대부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61-041-001-001

「대동문 공원 부지 평면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F066-006-015-001.

「국유 보물 건조물 보존 계획」,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F104-019-005-001~002

「대동문 공원 시설 계획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F066-006-014-001

「대동문 수리 공사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80-008

「대동문 현상변경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13-085-011~012

「보물 의주 남문(南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89-003-002-001.

「보통문 수선공사」,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59-004

「쇼와 9년-11년 보존비 관계 서류, 경기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78-010

「수원성곽 및 창룡문(蒼龍門) 수리 공사」,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32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일람」,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H052

「칠성문 수리에 관한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75-006

「칠층석탑 이전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063-010-001~006
「평양 대동문 현상변경 이유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A113-085-007-001~011.
「평양 이문리 소재 종각을 이전하는 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관리번호 F066-019-001-001~003

【단행본 및 보고서】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0
경기도,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화성 팔달문·화성 화서문』, 1998
국가기록원, 「도시계획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제2부, 『한국사연구휘보』, 152,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 국보유적 연혁 자료집』, 2012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읍성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3
문화재청, 『문화재청 50년사 본사(本史)편』, 2011
문화재청, 『풍남문 실측조사보고서』, 2012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출판사, 2006
반영환, 『한국의 성곽』, 1978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흥인지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6
손영식, 『한국성곽의 연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수원화성박물관, 『마음으로 그린 꿈, 역사로 이어지고 - 도면에 담긴 우리 건축』, 2011
전상운, 『신편한국사』 27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민속원,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1-5, 2009

【국외 단행본】

James D. Tracy, 『CITY W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国書刊行会, 『目でみる 昔日の朝鮮』, 1986

【학위논문】

강현,『日帝强占期 建築文化財 保存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5

김대한,『전차 개설에 의한 한양도성 문루 주변지역의 도시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5

김혜미,『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6

서왕우,『읍성의 보수정비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2004

서효원,『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오규성,『중층문루 건립배경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3

오규성,『조선시대 궁궐 및 도성 중층문루의 기능과 구조』,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16

오타 히데하루,『日本의「植民地」朝鮮에서의 古蹟調査와 城郭政策』,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우정희,『성곽문루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읍성문루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7

이수연,『1890-1950년대 청부업의 도입과 근대 건설업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1

이수진,『조선시대 읍성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논문, 2019

이순자,『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7

이연경, 한성부 일본일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 1885-1910년까지 도시환경변화의 성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3

이응묵,『한국 성곽의 성문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3

이정화,『의주로변 읍성도시의 도시형태 변화 연구 -황주, 안주, 의주의 지도 분석을 통한 도시 형태 비교』,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14

주상훈,『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사법, 행형, 교육시설 건축도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최윤정,『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24-32

최인영,『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2014

최자형,『숭례문과 주변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7

황연경,『일제강점기 수원 화성 보존수리 공사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21

【학술지 논문】

김명권, 박기동, 「한국 스포츠의 塵室 ,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인류학연구』, 2010

김민아, 정인하, 「조선 후기 이후 평양의 도시 형태에 관한 연구-평양성도와 1914년 평양부 지적원도 비교를 통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9(11), 2013

김병희, 「구한말 일제강점기 전주와 수원의 경관 변화」, 『역사와 교육』, 21, 2015

박선희,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전주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9(2), 2007

서효원,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고건축물 목록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건축 조사의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5(5), 2019,

원종혜,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 『역사와 경계』, 100, 2016

유군팔, 「조현신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본 경성(京城)운동장의 장소성」, 『기초조형학연구』, 15(2), 2014

이동근,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도시변화와 수원 華城」, 『수원학연구』, 5, 2008

이규창, 「북한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010

정은주, 「한양 도성의 동문, 흥인지문과 주변 이야기」, 『미술사와 문화유산』, 2016

정치영, 「여행안내서 『旅程と費用概算』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관광공간」, 『대한지리학회지』, 53(5), 2018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0

조성운, 「1910-20년대 수원지역 근대관광의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8, 2019

주강현, 「북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 『통일경제』, 2000

한규무, 「1907년 경성박람회의 개최와 성격」, 『역사학연구』, 38, 2010

【정기 간행물】

〈잡지〉

『별건호』

『개벽』

〈신문〉

「皇城新聞」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大韓每日申報」
「共立申報」,
「京城日報」
「慶南日報」
「新韓民報」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
국립중앙박물관 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https://www.museum.go.kr/dryplate)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지리정보 (https://db.history.go.kr/hgis/mod_g1/main.do)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UMC Digital Galleries (https://catalog.gcah.org/images/)
朝鮮写真絵はがきデータベース (https://kutsukake.nichibun.ac.jp/CHO/)
京都府立京都学・歴彩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www.archives.kyoto.jp/web searchpe/)

Abstract

Chang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Gate of City Wall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dvised by Prof. Jeon, BongHee

Kim, Taewan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changes in the role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gate, which was the entrance to the city wall,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o find out the process in which the meaning of the gate architecture left in the city was formed. The gate was a fortress facility that from the fortress built for military purposes and controlled access to and played a role in defense and command.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Eup-se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fortress emphasized not only military but also administrative purposes, and it became a basic framework for forming a city. In the city wall formed in this way, the gate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the main boulevard, providing a space for governance and communication, and sometimes serving as a ceremonial

space. In the pre-modern city wall, the gate was a multipurpose architecture with practicality and symbolism.

However, the role of the pre-modern gate began to collapse with the deconstructing of the fortress facilities led by Japan. As soon as Japan deposed King Gojong and invaded its national sovereignty, it destroyed the walls that blocked the old and new towns. The gate where the wall disappeared could not function properly, and it was only an obstacle to the expansion of roads and cities. Because of this, many gates were deconstructed along with the walls. However, some of the gates were left behind even though the walls were destroyed. First, Sekino Tadashi(關野貞) classified the grades of old buildings through a historical survey, and accordingly, the high-grade gates could be left without being deconstructed. In addition, even if the gates were not included in the historical survey, some cities tended to leave the southern gates with the highest rank among the gates. On the contrary, the gates to the north, which were difficult to deconstruct and did not interfere with the expansion of the cuty, could also remain. In this way, the gate could remain in symbolic meaning, architectural value, and economic reasons, and it is also worth noting the value of the use of the gate for public purposes.

The process of changing of gat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s interpreted as a process of otherization by Japan. As a means to emphasize the superiority of the nation, the strategy of otherization, which separates the culture of the ruled nation into inferior hitters, is confirmed during the changing of the gate. Thi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early and late colonial periods, and the pattern of otheriz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period.

First, the situation of the gates of the early colonial perio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deconstruction and remaining situations. The aspects of deconstruction appear as gates that are deconstructed along with the walls

and gates that are deconstructed after the deconstruction of the walls. This deconstruction patterns show that if the architectural value of the gate is not high or a new role is not obtained, it is deconstructed due to road renovation and lack of finance. On the other hand, Japan showed a passive conservation attitude toward the remaining gates. Most of the gates were maintained in the form of neglect, and among them, gates used for new purposes appeared. The gate was used for administrative facilities, exhibition and lecture facilities, auxiliary facilities, and decorative purposes through accessibility, symbolism, and spatiality. And the method of using the gate pavilion spa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ity and use, and accordingly, architectural modifications were made. The direction of the otherization of the early colonial period showed an incomplete form. Along with its use as a building symbolizing Joseon, there was a case of focusing on space utilization, indicating that the early colonial period was a time when otherization began and a transitional situation.

The role of these gates gradually began to change in different ways in the late colonial period. First, as the road was expanded, the arrangement of the gate was found to be the case where the fortress was left, the case where the road was bypassed, and the case of creating a transportation island, and this separated the area of the gate and isolated it from the urban organization. In addition, as the system of state-run construction shifted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es, new administrative facilities began to be built, and the need to use the gate for public purposes disappeared. And along with the tourism promotion policy, the gate was converted into tourism and used as an exhibition with pre-modern representation. Eventually, with the「Law for Conservation of Joseon Treasure, Historic Site, Scenic Beauty & Natural Monument (朝鮮寶物古跡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the role of gate was established as a cultural property, and this transformation of gate in the late colonial period shows that complete otherization took place. The gate as

a cultural property that has lost its function became a result of the otherization,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urban organization and left only the symbolism of Joseon. This situation of the gates and the cultural heritage system influenced until after liberation. South and North Korea maintained the effect of the「Law for Conservation of Joseon Treasure, Historic Site, Scenic Beauty & Natural Monument (朝鮮寶物古跡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and traces of it are confirmed in the designation, repair, and restoration projects of cultural properties. Today, the restoration of the gate and the fortress that disappeared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s drawing attention, and the need to consider the process and meaning of the gate change for proper restoration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rocess through which pre-modern architecture lost their functional roles and were symbolized in the gat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Until now,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gate have been concentrated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changes in the gat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have been dealt with fragmentedly in other studies such as fortresses and policies, so they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gate itself.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fill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study of gate, and through this, a new perspective will be presented to understand the gate left in today's city.

Key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City Wall, Gate, Gate Pavillion, Change of Use, Otherization, Tourism, Cultural Property
Student Number : 2020-26572